

기독교의 유사 교리화(類似敎理化) : 그 사례와 부정적 영향

강상우 사회복지 Coram Deo 연구원

논문 요약

본고에서 유사교리화(Pseudo-doctrinalization)의 의미는 교리(敎理)가 아닌 문제를 교리(기독교 본질)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의 원인 중에는 교리가 아닌 것(기독교 비본질)에 대해서 교리 수준(기독교 본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전제로 해서 본고를 논구하고자 한다. 즉 유사교리화의 사례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사교리화의 사례로는 이념들에 대한 유사교리화, 창조과학에 대한 유사교리화, 동성애에 대한 유사교리화, 여성안수에 대한 유사교리화와 술과 담배(酒草問題)에 대한 유사교리화 등이다.

주제어: 유사교리화, 교리(기독교 본질), 오늘날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들

I 들어가는 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uni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liberty),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charity)”²⁾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즉, 그 말을 누가 먼저 말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분분한 위(上)의 경구(警句, Catchphrase)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익을 준다.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건다는 말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큰 가치를 둬으로써 사소한 문제로 인해 많은 분란을 낳기도 한다. 말 그대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 중에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문제 중에도 본질과 비본질 간 구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비본질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타협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어떤 분류가 본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류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편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전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타협은 생각하기도 싫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불타협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 타협하는 것=비성경적인 것=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본질적으로 취급하는 현상에 대해서 유사 교리화(類似-敎理化, pseudo-doctrinalization)라고 본고는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일종의 과잉 교리화(過剩-敎理化)로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본질적인 가르침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한계

본고에서는 개인적으로 유사교리화로 보는 사례들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

2)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or Unity in necessary things; liberty in doubtful things; charity in all things”;
<https://douglasbeaumont.com/2013/06/18/the-origin-of-in-essentials-unity/> 참고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사교리화 사례] 유사교리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사교리화 부작용] 유사교리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1, 즉 유사교리화의 사례로는 구체적으로 (a) 이즘화(ismization)의 문제, 즉 특정 이즘의 유사교리화(pseudo-doctrinalization of an Ism), (b)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의 유사교리화, (c) 여성안수 문제의 유사교리화, (d) 동성애의 유사교리화, (e) 주초문제(酒草問題)의 유사교리화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이들 유사교리화의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특정 이즘이나 해석만을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들 이즘과 해석들이 지니고 있는 부작용(副作用/不作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과 더불어 특정 해석과 이즘만을 고집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발생하는 불협화음과 불일치,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의 분열 조장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³⁾ 논구에 앞서 본고의 기본 전제들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1) 성경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평가하는 기준인 캐논(Canon, 尺)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구약의 기록부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공으로 한 구속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24:27) 즉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성경은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1:20)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3) 사회구조에 대해서 지적하면 쉽게 색깔논쟁의 프레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부분이다.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얘기한다고 모두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 논의 가운데는 성경 이야기-특히 예언서와 복음서-에 깊이 뿌리를 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런 비판이 이 편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판 말이죠.”(Walsh and Keesmaat, 2011: 158-159)

과 의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유익하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공동번역〉, “The entire Kitvei HaKodesh is Hashem-breathed and useful for hora’ah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tzedek”, 〈OJB〉)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르침과 행위 등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상고(詳考)하였던 베뢰아 사람들처럼 말이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17:11, “and every day they carefully examined the Scriptures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NOG, Names of God Bible〉, “hey searched the Scriptures day by day to check up on Paul and Silas’ statements to see if they were really so.” 〈TLV, Living Bible〉, “yom yom [daily] making a chazora [review] and examining and horiva over [analyzing] the Kitvei HaKodesh, to see if these things might be so. [Dt 29:29]” 〈OJB〉) 성경은 어떤 특정 이론이나 사상(-isms)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편먹는 것(간부)이 아니라, 그들 이론이나 사상이 지는 숨겨진 문제점(hidden issues)에 대해서 지적(rebuke, reproof)하고 고쳐주고 (correction)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teaching, training)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canon, “κ α ν ο ν 은 곧은 막대기, 자 등을 의미하나, 상징적으로 규범을 의미하기도 했다.”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캐논인 성경은 불변의 자(尺)로 사회의 모든 이념과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⁵⁾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거짓된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강한 캐논(cannon, 大砲)으로써의 역할을 신앙생활에서 감당하게 된다.

2) 이미와 아직 사이(Already But Not Yet)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정확/完璧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나라(Kingdom of God or Heavens)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또는 다가올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Already but not yet)에 있다. 현실에서 하나님나라는 완성(이미, already)과 미완성(아직, not yet)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⁶⁾

4)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A%B2%BD%20%EC%A0%95%EA%B2%BD>

5)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근거를 둔 기독교세계관은 수용과 거절 그리고 변혁(Acception, Refusal, and Transformation)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성경(canon)이 대포(cannon)와 같은 파괴력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강상우, 2011)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Mark 1.1-8;
 Luke 3.1-18; John 1.19-28)

1 Years later, John the Baptist started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2 He said, "Turn back to God! The kingdom of heaven is soon here." h)

3 John was the one the prophet ^{will soon be here: Or "is about, when he said, "in the de already here."} shouting. (Get the road read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미래에 있다고 강조한다[눅 11:20] 그 나라는 금세 임하겠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벧전4:7; 고전 7:29; 롬13:12) 징조들이 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우리가 알 수도 없다[눅21:5-36](Bailey, 2016: 185)

참고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대해 CEV(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완성(is already)⁷⁾과 미완성(will be)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Incarnation, 成肉身)으로 하나님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Parousia, 再臨)을 통해서 하나님나라는 완성되게 된다.

하나님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한다는 현실은 완성된 하나님나라의 이상(理想)과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章)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하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13:12, <개역개정>)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다. 동경(銅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역본들은 단순하게 거울(mirror)나 글래스(glass)로 기록하지 않고 수식어(a mirror, in an enigma, <DLNT>, a glass, darkly, a mirror dimly [a blurred reflection, a riddle, an enigma], <AMP>, ἐσόπτρου ἐν αἰνίγματι,)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완전하게 객관적이고 성경적일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더 진리에 가까운가를 경쟁할 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우린 여러 설명들을

6)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 하나로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이미’(already)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고 ‘아직’(not yet)은 인간의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지만(already), 동시에 그분의 나라의 충만함과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있다(not yet). 요한의 서신에서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접하게 된다[“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not yet)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already)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한일서3:2)]”(제원호, 2019: 54)

7) “... Μετανοείτε, γὰρ ἤγγικε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마3:2) ἤγγικεν(ēggiken)은 완료형으로 ‘이미(already)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원형은 ἐγγιζω(eggzō)다.

만들 권리가 있고 그 중 최상의 설명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살전13:12)(윤철민, 2013: 241)

3) 본질과 비본질(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 등에 대한 구별이 때로는 필요하다. 성경은 자(尺, canon)로 사상과 이념이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상과 이념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상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고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문제를 접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Essential Doctrine)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Non-essential Doctrine)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경직, 2018 참조) 「사도행전」의 저자인 역사가(歷史家)인 누가(Luke)는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 6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7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 20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행15:1-20, <새번역>, 강조는 본 연구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대목은 톱다운(下向式, top-down decision-making) 방식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의의 결과는 당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쟁을 한 뒤에’(행15:7a,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개역개정>, ‘오랜 토론 끝에’, <공동번역>)⁸⁾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오랜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은 무엇일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

8) much disputing <KJV>, much discussion <NIV>, much debate <RSV>, much deliberation <OJB>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할례와 같은 어떤 특정한 예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행15:11)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 신칭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외의 문제들, 즉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행15:20) “할례 문제=본질적 문제=이견 없음, 왜? 그 이유는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행15:11,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행15:1]) 고로 할례는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 외의 문제들[‘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음행/목매어 죽인 것/피’]=비본질적인 문제, 왜? 구원과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행15:20,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행15:20]) 고로 신앙에서 멀리하라(abstain from).” 본고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다루는/강요하는(!)/이해하는 유사고리화의 유형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본질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표]를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본질과 본질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구분	본질(敎理)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본질(敎理)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본질(非敎理)이 아닌[특징이거나 전통]
칭의 여부	칭의와 관련됨	(칭의 이후) 성화의 삶과 관련됨	해석과 관련됨			
Sin/sin 여부	The Sin	a sin	not a sin			
구원 여부	구원과 관련됨	거룩한 삶과 관련됨	해석의 영역			
이단 여부	위반 시 이단	신앙적 일탈행위	신앙적 일탈행위와 무관			
사례	삼위일체 교리	동성애 문제	이즘화의 문제(反共과 親資本) 여성안수 문제/ 창조과학의 문제			
		주초(술·담배)문제 (성화의 문제이나 죄는 아님)				

오늘날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특정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이즘화의 문제, 창조과학의 문제, 동성애 문제, 여성안수 문제, 주초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교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와 주초문제는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인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경에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적 삶을 사는 것은 성적 일탈행위(逸脫行爲)로 하나님 앞에서 죄(a sin)

가 되는 것이다. 주초문제(酒草問題)의 경우에는 거룩한 삶과 관련된 것으로 성경이 동성애와 같이 특별하게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증화하는 것이나 안수문제를 창조질서에 결부시키는 것과 창조과학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안수 문제와 특정 이념을 이증화하는 문제, 창조과학의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재고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다른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서(“I. 들어가는 말” 부분에서) 언급했던 경구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In necessariis unitas),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In unnessariis libertas),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In omnes charitas)”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一致)를, 비본질적인 성화와 관련된 것에는 자제(自制)와 순종(順從)을, 비본질적인 해석과 관련된 것에는 관용(寬容)을”으로 말이다.

II 한국 교회의 유사교리화의 사례와 그 부작용

1 유사교리화의 사례

1) 특정 이즘에 대한 유사교리화

기독교는 또한 이념 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택하지 않는다.(양창삼, 1987: 78)⁹⁾

유사교리화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특정 이즘의 교리화의 경우를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자(尺)이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이념(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성경이 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상황과 이념과 편먹고 마는 것이다. 일종의 성경이 특정 이념의 깁부가 되고 만 것이다. 특히 한국

9) “기독교는 하나님이 문화의 조직자(cultural organizer)요, 동기부여자(cultural motivator)요, 문화의 궁극자(cultural finalist)임을 믿는다. 특히 문화에 대한 변혁적 인식에서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기독교는 또한 이념 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문화와 등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문화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함은 확실하다.”(양창삼, 1987: 78)

에서는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등 특정 이즘(sims)과 편을 먹고 이들 이념을 유사교리화의 수준으로까지 이끌게 된다.(김명배, 2013: 176; 강인철, 1995: 346 참조)¹⁰⁾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기독교나 교회 공동체는 반공주의, 친자본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 이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제기하거나 반문을 하게 되면 성경과 거리가 먼 비성경적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단어로 비난하기까지 한다. 사마귀라고 비난을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탄·마귀·귀신이 되고 만다.

(1) 반공주의에 대한 유사교리화

반공주의와 관련된 유사교리화에 대해 살펴보자. 광호철의 언급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공산당과 사회당의 역사에 기독교인들이 관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독립을 꿈꾸던 초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해나갔고,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동휘, 여운형, 이대위 등이 있다. 기독교 전도사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는 1918년 “한인사회당”을 창설했고, 1921년 여운형과 함께 고려공산당을 창당한 것을 통해 볼 때, 한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광호철, 2020: 278; 이동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김인수, 1995: 74-78 참조¹¹⁾)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독립의 한가운데에 있었기에 다양한 민족운동가들과 연합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었다.(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인수, 1995; 고영은, 2016 참조) “기독교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희망으로서 민족의식을 회복시키고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민족주의와 기독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교회는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민족 운동가들과 접촉과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해방 후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산주의자들과도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고영은, 2016: 868) 그런가 하면 이승우 교수의 지적처럼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적

10) “해방 이후 최근까지 한국 보수교회 통일관의 사상적 배경은 ‘반공주의’ 사상이었다. 이들은 반공주의를 교리 수준으로 상승시켜 놓았다.”(김명배, 2013: 176; 강인철, 1995 참조. 강조는 본 연구자) 강인철 (1995).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교회”,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1) 김인수 교수는 이동휘와 관련해서 기독교인이면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으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김인수, 1995: 77)

성향을 지닌 교회 공동체는 신사참배에 대한 수치심을 반공주의로 전이시키게 된다. “20세기 초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민족을 발견하게 되며, 개신교라는 서구의 정신적 힘이 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자들의 진지가 되었고, 예수는 자연스럽게 민족해방의 종교적 아이콘으로 채색되었다. 한편 1930년대 말 사회주의 세력과의 갈등과 신사참배로 인한 굴욕감을 전이시키기 위한 시도로 한국 교회 내부에서 반공담론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통해 반공담론은 더욱 확대 재생산되며,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로 표상화되었다.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는 반공의 종교적 상징이 되어갔다.”(정승우, 2013: 577, “III. 적그리스도와 반공담론의 형성” 592-60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냉전이라는 전세계적 분위기와 이 나라만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인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韓國戰爭, 1950-1953)과 그로 인한 남북분단(南北分斷)이라는 현실은 반공주의가 이 땅에서 불박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미소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발생한 한민족 내전은 한반도를 선과 악의 종말론적 싸움으로 채색시킨 우주적 전쟁터로 만들었다. 냉전체제와 그 하위 분단체제 속에서 북쪽의 무신론-공산주의와 남쪽의 종교자유-자본주의라는 이항대립적 세계관이 형성되었으며 한국교회와 반공주의는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합하였다.”(이형규, 2020: 120)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의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냉전 반공주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장규식, 2006: 2[pdf 페이지 수다]) “한국교회의 호교=반공주의는 분단과 전쟁이 빚어낸 한국현대사의 굴곡진 한 단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장규식, 2006: 26) 남북 간의 이념적 대치국면과 피난 온 북쪽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반공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의 개신교가 냉전의 동서 대치국면에서 서방의 반공주의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수많은 기독교인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반공의 보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공주의적 한국 기독교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정부에 협조하여 함께 반공 운동에 앞장섰다.”(전진관, 2017: 23) 공산주의를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나 악마, 사탄, 적그리스도 등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조용훈은 과거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면서 남한의 개신교회는 반공주의의 결집지요 공산주의 비판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공산주의는 점차 기독교인 사이에서 ‘사탄론’으로 신학화되고 교리화되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인 사탄으로 묘사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말과 그 탄자’요,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가 공산주의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이 지금은 3천이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괴물을 벨 자 누구냐?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조용훈, 2006: 63; 한경직, 1963: 10-11; 이만열, 1995: 19 재인용; 이병성, 2020: 170 참조. 기독교계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곽호철, 2020: 275-276 참조)¹²⁾

그 누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친공(親共)할 수 있었겠는가? 특정한 일부 이들만을 제외하고는 단연 반공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반공으로 끝나지 않고, 반공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리와 같은 지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공을 교리 이상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이다.(이형규, 2020: 92) 윤웅진의 지적처럼 이 나라에서의 통일에 관한 기독교적 노선은 ‘반공주의 노선’으로 간주될 정도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노선은 주로 반공주의 노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회의 평화공존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윤웅진, 2012: 27-28) 남북 간에 평화공존에 대한 견해는 친북, 용공, 반체제의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몰고 간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공존이 아니라 ‘멸공통일론’(혹은 ‘북진통일론’)을 기독교의 통일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론은 ‘친북’, ‘용공’, ‘반체제’의 혐의를 받는다.”(윤웅진, 2012: 37)¹³⁾ ‘레드 혐오=국가안보’ 프레임(박종균, 2021: 49 참조)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는 정교 유착과 교권 다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장규식, 2006: 4) 김명배의 지적처럼 반공적 한국 교회는 반공을 국시로 한 정부와 유착의 관계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 반공적인 한국 기독교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남한 정부와 친화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반공주의적인 보수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수적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정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반공주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신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친정부적 성향을 띠게 하였다.”(김명배, 2007: 53-54) 친정부적인 교회의 성향은 교회의 반공주의 노선과 정부의 정책

12) 한경직 (1963). “그리스도인과 반공”. 『새가정』, 10-11.; 신천학살에 참여한 한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자를 사탄과 동일시하는데,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 이렇게 표현되었다. “우린 십자군이겠다. 빨갱이들은 루시퍼의 새끼들이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나는 미가엘 천사와 환편이구 놈들은 계시록의 짐승들이야. 지금이라도 우리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마귀들과 싸운다.”(곽호철, 2020: 273 재인용; 황석영, 2002: 22; 이형규, 2020: 118); 황석영 (2002). 『손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3) 빌리 그레함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기초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에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서 반공주의 사상을 한국 교회에 깊이 심어놓는 역할을 했다.(김용국, 2018) 김용국은 빌리 그레함의 한국 교회에 반공주의 강조를 긍정적 유산으로 소개한다.

과 정부 지도자의 행위를 등치(等値)에 놓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박규환, 2011 참조) 박정희 시대의 반공 군사정권과 반공주의적 교회의 친정부적 영감의 역사[政教癒着]가 바로 “쿠데타와 베트남 파병, 삼선(三選) 개헌(1969년)과 10월 유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박정신·박규환, 2012, 이로 인해 박정희 시대 때 기독교가 ‘교회교 [Churchianity]’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반공주의 노선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자(尺, canon)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서의 기독교의 흑역사(黑歷史, dark chapter, “Distorted Christianit”, [박정신·박규환, 2012] 참조¹⁴⁾)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도자들의 행위에 순응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인식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교회 지도자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지도자 행위에 반대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비판이나 저항과 거부는 곧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취급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적 성향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강하게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교권 다툼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신학자 박형룡은 미국의 반공주의의 저서들을 읽고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붉은 세력이 침투했다고 음모론을 퍼트리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등을 싸잡아 공산주의자와 결탁한 자라고 비난하며 많은 신학교에서 이것을 교육하였다.”(이형규, 2020: 92) “공산주의를 악마화한 종교적 폭력은 남한의 교회 지형에서 극좌 극우가 아닌 온건한 노선에 위치한 남북협상론자인 김규식까지도 용공으로 몰아붙였고”(이형규, 2020: 117),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미국복음주의연맹(NAE) 노선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예수교장로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예장 교단의 WCC 탈퇴를 주장한 합동 측은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을 ‘용공 신신학’이라 비난하고, NCC를 용공 단체로 정죄하는 한편, 거기에 가담한 교회를 사탄의 집단, 그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며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끌고 갔다.”(장규식, 2006: 4)

(2) 자본주의에 대한 유사교리화

14) 박규환 (2011). “한국 개신교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전쟁 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 12. 179-204.; 박정신·박규환 (2012). “‘뒤틀린 기독교’군히기: 박정희 시대 한국 개신교의 자취”. 『현상과 인식』 . 36(1). 41-60.

반공주의의 유사교리화와 함께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이념의 유사교리화의 다른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유사교리화의 경우다. 앞서 반공주의의 유사교리화가 ‘교회=반공, 사탄=공산당’이라는 도식으로 작동한다면, 자본주의의 유사교리화에서는 ‘교회=친자본, 부=구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심지어 비유(‘불의한 청지기 비유’, 눅16:1-13 참조)를 통해 피조물인 맘몬(Mα μ ω ν α, μαμων)을 자신/하나님의 대항마로까지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물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 <개역개정>, “Your avodas service cannot be for both Hashem and Mammon.” <OJB>,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NIV>,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KJV>,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NASB>, “οὐ δύνασθε θεεῶ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ᾶ. [ou dunasthe Theō douleuein kai mamōna], 강조와 첨가는 본 연구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피조물인 맘몬을 자신의 대항마로까지 언급하셨을까? 이는 돈으로 상징되는 맘몬이 지닌 위력/영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희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토티 문화권에 있어 「돈」이란 인간사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 필요한 매체이지만, 그것이 부주의하게 증식하게 되면, 「신」이 통치하는 세계 자체를 탈취해서 유린해 버릴지도 모를 공포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돈(貨幣)의 신(神)인 마몬(Mammon)을 악마 즉 사탄으로 규정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강희원, 2018: 364) ‘돈/화폐/자본=거짓 신[偶像]’(The Money God, Money as God, 錢神). 자본의 지위가 신의 지위로까지 급부상하게 되고, 자본이 종교를 지배하는 교리로까지 확장되게 된다. 자본주의는 자본교(資本+教[宗教])가 되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憂慮)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정용택, 2023 참조)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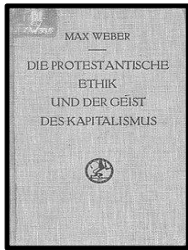
성경은 재물과 관련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¹⁶⁾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15) “자본주의의 일반공식을 신격들의 일체화로 표현했었던 신-M(마르크스), ‘자본-교’(라파르그), ‘제의종교로서의 자본주의’(벤야민)등의 개념들은 함께 신정정치의 운동 양식으로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비판한다.”(윤인로, 2014); 정용택 (2023). “현대 자본주의의 종교성 연구-발터 벤야민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 48. 1-36 참조.

성경은 물질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 <개역개정>, “mefakkechim tovim [good stewards, supervisors], <OJB>, “as good stewards”, <KJV>, “as faithful stewards”, <NIV>, “καλοὶ οἰκονόμοι [kaloi oikonomoi]”, 강조와 첨가는 본 연구자)

그렇다면 왜?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청지기적 삶과 거리가 먼 자본주의에 대해서 친화력을 보이게 되었는데 하는 점이다. 심지어 성경이 마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거기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교리의 수준으로 친(親)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먼저 학문의 영역에서 막스 베버(Max Weber) 등의 연구 결과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양낙홍 교수와 최형묵 전(前)교수가 언급하듯이 기독교 즉 칼빈주의의 산물이라는 막스 베버의 명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¹⁷⁾ “사람들은 종종 자본주의가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의 기독교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제일 중요한 배경은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일 것이다.”(양낙홍, 2013: 190, <그림>¹⁸⁾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다는



16) “세상의 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는 성서에서 두 가지 관례에 표현된다. 두 관례는 고대 히브리인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이어진다. 첫째, 고리대금업이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거둬진 금지다. 둘째, 땅과 부를 정기적·근본적으로 재분배하라는 명령인 회년(Jubilee Year)의 주기적 준수다. 이런 성서의 관례는 오늘날 고풍스럽고 시대에 뒤쳐진 듯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검토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절박한 타당성이 있다.”(Cox, 2018: 87)

17) 참고로 러시아 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해서 오두영은 ‘구교파’(Old Believers) 공동체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반자본과 반물질적 성향을 지닌 이들이 비그 강(Vyg River, Река Вьг) 유역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처한 환경적 요건(‘생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에 의해서 곡물 중개활동 등 상행위(商行爲)를 하게 되었다는 이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상인과 물건 사는 자들을 내쫓으니라’(마태복음 21장 12절). 이 성경 구절은 상업 활동과 구교도인들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하나의 지침이었다. 상업 활동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인데 정교회적 관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죄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정교회적 이상은 ‘상업’의 본질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사실 17세기 ‘동란의 시대’ 이래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상교역에 대한 서구적 관념이 확대되어 ‘모든 상교역이 죄는 아니며 모든 것은 상인의 의도에 달려있고, 적법한 상교역을 통해서 획득한 이득은 정당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비그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오두영, 2013: 61, “III. 안드레이 테니소프의 경제윤리관”. 61-66 참조)

막스 베버의 명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명제를 접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이 곧바로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정당화할 만한 경제관의 변형을 동반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 윤리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 베버의 통찰이었다.”(최형묵, 2016: 130-13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뱅주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이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선택적 친화성’이라 명명하는데,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가 우연히 친화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다.”(박종균, 2019: 147)¹⁹⁾ 베버의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란 칼뱅주의를 말한다. 칼뱅주의의 교리인 예정설에 주목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예정은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를 가능하게 되고 금욕적 삶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豫定論과 職業召命論]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신의 구원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여부를 알기 위해 금욕적 노동에 충실한 인간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철저한 겸손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명 의식에 의한 금욕적이고 충실한 노동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직업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근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베버는 주장하고 있다.”(윤진숙, 2010: 6, “II. 프로테스탄트 윤리”. 3-6 참조; 최유진, 2017: 423; 한성기, 2014: 81)

칼뱅주의 구원 예정설, 직업 소명설(Beruf, Calling), 세속적 금욕주의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통해서 재산축적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²⁰⁾을 가하던 리처드

18)

https://en.wikipedia.org/wiki/File:Die_protestantische_Ethik_und_der_%27Geist%27_des_Kapitalismus_Original_cover.jpg

19) 선택적 친화력(Die Wahlverwandschaft, elective affinity)은 괴테의 소설 제목에서 유인한 것을 베버가 차용한 것으로, 원래 화학용어로 두 원소가 친화력으로 인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말한다. “베버는 자신의 연구를 ‘자본주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낳았다’거나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탄생했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사이에는 어떤 선택적 친화력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했다.”(김성은, 2011: 148)

20) “토니는 서유럽국가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막스 베버의 유명한 논지와는 오히려 반대로, 종교개혁 이후 점차 자본주의의 영향에 압도되어 협애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과 무관해졌으며, 중세 신학이 간직했고 후기칼빈주의가 소홀히 했던 관념, 곧 사회는 경제기구가 아닌 영적 유기체였고, 경제활동은 반대하고도 복합적인 통합체의 하위 요소로서 도덕적 목적에 비추어 규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마침내 포기했다고 분석한다.”(고세훈, 2015); 고세훈 (2015). “R. H.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 기독교적 위상과 한국적 함의”. 『OUGHTOPIA』. 30(2). 5-31.; 토니(Richard H. Tawney)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베버가

H. 토니(Richard Henry Tawney)도 자본주의 정신에 칼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뱅은, 비록 엄격하기는 하였지만, 상업중심의 문명의 도래를 받아들였고 또한 미래를 주도할 상인 계급에게 적당한 신조를 공급해 주었다.”(Tawney, 2015: 54) 베버가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테제를 접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 그렇구나”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칼뱅주의(Calvinism)데”라고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강한 친화적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본에 대한 인식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중세사가인 자크 르-고프(Jacques Le Goff)는 앞서 언급한 막스 베버나 리처드 토니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탄생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²¹⁾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이자 대부(高利貸金, Usury)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서 근대 은행의 출현과 자본주의의 탄생을 지체

주장한 것처럼 '신교 국가'라는 강한 특징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면에 걸쳐 진행된 경제혁명의 결과라고 말한다. [https://v.daum.net/v/20180829095656032?f=o; 정윤수 “[정윤수의 ‘서문이라도 읽자’]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주간경향> 1552. (2023.11.6.-12).]; 토니는 <개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M. Weber)가 통찰력있게 지적했던 칼뱅주의 정신—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이 자본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 자세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남기려는 청교도들의 자세가 자본주의에 미친 정신적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a. 베버가 지적한 대로,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의 자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는 주지의 사실이다. b.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을 자본주의 정신의 효시로 보는 견해는 일방적인 견해이며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 칼뱅주의가 들어가지 못했던 15세기 베니스, 플로렌스, 혹은 남부독일이나 플랜더스 등지에서 일어났던 자본주의의 발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그곳들은 다 가톨릭 지역이었다. c. 자본주의가 발달한 16세기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칼뱅주의의 영향이었다기 보다는 상업이 중흥하는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d. 어느 한 종교적 사조(칼뱅주의)가 자본주의를 부상시켰기보다는, 상업중흥의 시대에 종교적 사조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e. 베버는 자본주의 발달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 시대 사조—르네상스나 마키아벨리적 정치—나 개인들의 경제적 관심사—돈과 이윤, 그리고 부에 대한 관심—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이런 측면은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f. 베버는 칼뱅주의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했다. 17세기 청교도들과 칼뱅을 동일시 한 것도 문제다. 또한 청교도들 모두가 동일한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환원한 것도 문제다. 어떤 청교도들은 중세적일만큼 엄격하고 청빈했고, 어떤 청교도들은 부의 문제에 있어서 허용적이었다. 특히, 칼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장로교도들, 회중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차이가 상당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5.; 크리스찬북뉴스, “칼뱅, 기독교 사회주의 원조로 추앙되다.”. <뉴스엔조이>. (2016.12.06.)

21) 남중국은 르 코프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자 대부를 금하는 교회의 윤리적인 경제관념이 자본주의 형성에 장애물 역할을 했다는 르 고프의 지적은 부분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속 권력이 한목소리로 이자 대부의 근절을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고 집중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 고프의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며 유효하다. 우선 이자 대부업자에 대한 종교적 제재와 법적 처벌이 완전히 사문화되지 않았고 게다가 자본주의 탄생을 선구적 역할을 했던 이탈리아 상인과 은행가들은 유대인과 함께 항상 처벌과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남중국, 2015: 37)

시켰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중세사가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는 이자 대부를 둘러싼 논쟁을 자본주의의 출산 과정으로 묘사한다. 르 고프는 이자를 죄악시하는 중세 교회의 윤리적 경제 관념이 자본주의의 탄생을 저해하고 지체시켰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처럼 이자 대부를 죄악시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켰다면 이자 대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근대 은행은 출현하지 못했거나 매우 느리게 나타났을 것이다.”(남종국, 2015: 9: Le Goff, 1998: 95 참조)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탄생에 발목을 잡은 고리대금업과 지옥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소했을까? 시간에 지나면서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수순(手順)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지옥의 공포는 연옥을 탄생케 함으로써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16세기에 상업자본주의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어가면서 유럽크리스트교세계에서 십자군운동이 최고조에 달하고, 특히 동방무역으로 대자본을 축적했던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가(Fugger family)의 후원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른 카알 5세(Karl V, 재위기간: 1516-1556)가 십자가와 동맹을 맺고 이슬람세계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1543년경 대외(=이방인)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해서 이자부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은 확실하며⁴⁸⁾ 그 이후부터 크리스트교공동체 내에서도 「이식」 금지 자체는 조금씩 완화되어 공식적으로 폐기되게 되었다.(강희원, 2018: 363)

자본주의로 향하는 기독교인 고리 대금업자들의 발목을 붙든 것은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한 공포였다. 연옥은 중세 경제가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연옥이 전부는 아니었다. 르 고프는 여기서 고리 대금업자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용인받기까지 거쳐야 했던 다른 길들도 탐색하고 있다. 스콜라 철학이 이자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도입한 노동의 대가, 위험, 보상 등의 새로운 개념, 그리고 13세기 들어 모든 영역에서 부각된 절도(節度)의 이상(이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자는 용납이 된다)은 그 일례이다. 그리하여 고리대금에 포함되던 행위들이 대거 합법적인 이자 대부의 영역으로 옮겨 가고 많은 고리 대금업자들이 돈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희망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김정희, in Le Goff, 1998: 137, 김정희, “옮기고 나서”. 136-139 참조)

그렇다면 내세를 강조하는 이 나라의 기독교에서 어떻게 자본 친화적인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자본주의를 교리화할 정도의 신앙적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숙진 박사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친자본적인 변영신학의 선포 등으로 인해서 친자본주의적 행태를 교회 공동체가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의 성장주의와 공명하면서 등장한 교회성장주의는 ‘삼박자구원’으로 대표되는 ‘변영신학’의 주요한 확산통로였고, 그 과정에서 ‘잘 살아보세’의 교회 버전인 ‘예수 믿고 잘 살자’는 신앙의 논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민주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교회는 새로운 버전의 ‘부의 복음’을 출현시켰다.”(이숙진, 2016: 83; 이정연 2019: 384 참조)²²⁾ 공헌배도 이정배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자본주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를 기독교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화되었듯이 자본주의를 기독교화 못한 채 자본주의화 된 기독교의 모습으로’라는 말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 안에는 한국적 자본주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공헌배, 2021: 8; 이정배, 2010: 249-250 참조) 박득훈 교수의 명쾌한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근본주의적 개신교는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친다. 또한 그러므로 재물을 버리고 신을 섬기라고 요구한다. 그러고는 결론적으로,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신의상, 2018: 53-54; 박득훈, 2008: 39-43 참조)

2) 창조과학(회)의 해석에 대한 유사교리화

창조과학(Creation science or scientific creationism)의 해석에 대한 교리화라는 것은 창조과학(회)의 특정 해석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이다. 특히 과학-특히 창세기 해석의 경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회)의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창조과학회의 해석=교리,’ 즉 창조과학회의 해석이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리적 가치가 부여되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과학회의 해석은 교리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어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가 되거나 비판받기가 쉽다. 김정형 교수는 창조과학과 관련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22)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부의 증대, 성공, 건강, 삶의 평안 등을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93년에 신자 60만 명 이상의 세계적인 초대형교회로 성장했다. 1970~1980년대에 변형신학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삼박자 축복론을 설교했다. 그는 신이 영혼만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를 구원하는 존재로 상정했고 이를 통해 구원의 범위를 물질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신학적 교리에서 벗어나 쉽고 실질적인 현세적 축복과 희망에 관한 설교를 했다. 신을 믿으면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 번영을 함께 얻는다는 그의 종교적 메시지는 가난으로부터의 탈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이정연, 2019: 384); “[조용기 목사]의 신학은 그가 가장 애용하는 다음의 성서 구절에 기초해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2절, 개역개정판) 바로 이 구절이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삼박자 축복론의 근거이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며,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입장 위에서 그는 이 세상 안에서의 복, 건강, 물질적인 번영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과로 강조한다. 그런데 그의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는 한국의 사머니즘과 특정 그리스도교 사상을 혼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부흥사 로버트 슐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풀러 신학교 교회성장론자들의 실용주의를 한국의 사머니즘과 교묘하게 혼합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정순, 2016: 344)

표하면서 과학시대 창조론의 정립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²³⁾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정죄되기 쉽다. 창조과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어찌 보면, 과학 시대의 창조론 정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의 이름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무신론들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창조신학을 고집하며 현대 과학과 정당성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형, 2019: 114-115)

창세기에 나온 창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할까? 창세기의 창조 과정에 대한 창세기 저자의 기술이 과학적 기술인 것일까? 특히 과학적 기술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에 근거한 기술일까?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기술인 것일까? 창조 과정에 대해 연구를 하려면 무엇을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告白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전공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의 기록인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학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학자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상대적으로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수신앙의 상징적인 인물인 존 칼빈(John/ Jean Calvin)의 경우도 창조에 대해서 적응이론(Accommodation Theory)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칼빈도 창조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문자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이 증명(證明)하

23) 하스마 부부(Deborah B. Haarsma and Loren D. Haarsma)는 창조과학이 지닌 과학적 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이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젊은 지구론을 믿으면서 증거를 찾는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중 몇몇은 꼭 거쳐야 하는 과학적 관행을 무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유포하는 때가 많다. 반대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외면한 채 젊은 지구론적 설명을 내세워 이를 고립된 과학적 관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일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케케묵은 결과들에 기초하여 논리를 펴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단 하나의 논문만 인용할 뿐,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논문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미 수년 전에 인식하고 해결해 놓은 주류 과학 모델의 부분적인 결함들을 계속 비난한다.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이 젊은 지구 창조론과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할 때도,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간단히 무시해 버리거나 ‘진화론’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슬프게도 일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에게 과학적 성실성(integrity)이 부족하여 젊은 지구론운동 전체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전체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Haarsma and Haarsma, 2012: 140)

는 것에 대한 문자적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칼빈은 적응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칼빈은 성경을 적응(accommodation)의 방법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 사람이다. 적응이론이란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임영동, 2019: 190; 조덕영, 2004: 201 참조²⁴⁾; 이신열, 2018: 42. 또는 “II. 적응이론”. 42-47.)²⁵⁾ “하나님은 계시를 수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지식의 한계에 맞추어 자신을 적응시키셨다. 계시의 수납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물리학이나 우주 과학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다. 칼빈이 말한 계시 적응이론(accomodation theory)에 따라 당대의 백성들의 지식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과 소통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고대 근동인들의 우주 지형도는 다신론적인 개념으로 각각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구약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세계를 섭리하는 분으로 묘사된다.”(이희성, 2020: 56)²⁶⁾ 칼빈의 적응이론에 의하면 창조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과학 이론에 입각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설령 과학에 입각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과학이론이 아니라 기록 당시의 과학 이론에 대한 진술이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기록 당시의 대중/聽衆을 대상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절대로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래 맞아.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 이시다.” 그러므로 창세기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것도 과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²⁷⁾ 그것이 맞는 내용인지 아

24) 조덕영 (2004). “칼빈의 과학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 4. 193-208

25) 포드 루이스 배틀즈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이신열, 2018: 43, 5번 각주)

26) “우리는 구약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을 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성경을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부터 해석하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고대 근동의 문헌은 성경 해석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기에 둘 사이의 비교 연구의 무용론의 견해이다.”(이희성, 2020: 57)

27) 신재식 교수는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를 ‘종교적 문자주의’로 규정한다. 다만 창조과학은 강성 종교적 문자주의이고, 지적설계는 지적설계는 연성 종교적 문자주의일 뿐이다.(신재식, 2008: 29ff); 신재식 교수는 “창조과학이 성서(종교)와 과학을 관련시키는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서(종교)와 과학은 동일한 대상을 다루지만, 성서(종교)가 과학에 우선한다. 창조과학은 동일한 사건을 성서와 ‘참된’ 과학이 다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성서가 과학을 포괄한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은 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서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 특징은 창조과학의 논의 전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창조과학의 모든 논의는 다루고자 하는 각 주제와 관련된 성서 구절을 먼저 인용하고, 그 구절에서 의미하는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적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과학 자료가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다. 둘째, 과학에는 ‘거짓’ 과학과 ‘참된’ 과학이 있다. 창조과학의 논증에서는 과학이 성서나 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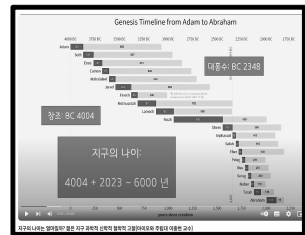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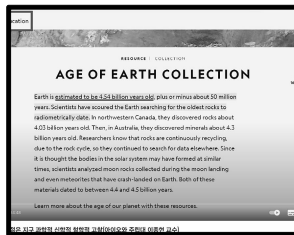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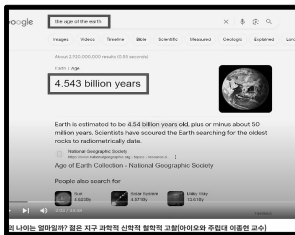
닌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앙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주영흠 교수가 창조과학의 문제점²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창조주신앙은 과학이나 철학의 함수가 아니다. 자연과학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창조주신앙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창조론적 입장이긴 하면서도 히브리어 본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유사창조론은 제1종 유사종교사상에 해당할 것이다.”(주영흠, 1983: 38)

창조신학(회)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구 나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창조신학회가 중심인 젊은 지구론자들의 주장처럼 6000년일까? 아니면 과학자들의 연구대로 지구 나이가 45.4(±0.5)억 년일까? 과거(2017년)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와 관

때문에 성서 진술과 과학 자료는 항상 일치해야만 한다. 성서 진술과 과학적 진술이 일치 않는 경우는 주류 과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경쟁하는 자연과학 이론이나 실험 사실을 인용하며, 이것이 바로 ‘참된 과학’이다. 이들에게 현대 주류 과학은 ‘거짓’ 과학이며, 성서를 뒷받침하는 과학이 ‘참된’ 과학이다. 과학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성서에 대한 특정 신학적 해석이다.”(신재식, 2008: 34-35); “젊은 지구론이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표현에 의거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에 이르는 모든 족장들의 나이를 전부 더해서 지구와 우주의 탄생이 6천 년 전에 문자적인 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형태다. 이 입장은 다양한 종류의 창조과학 중 하나이며, 가장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경직성을 가지고 성경 본문과 현대 과학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임택규, 2016: 35)

28) 다음도 참조하라. “‘창조과학’은 현대 과학의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과학이 아님을 옹변하는 자승자박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론은 ‘과학’·‘과학적’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성서에 씌어있는 신의 창조를 절대적인 진리로 전제해 놓고 그것을 부인할 경우의 모순을 지적하려 한다. 이것은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인데 이 경우 전제 자체가 오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의 논법은 합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감정적인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송상용, 1983: 61-62);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경의를 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일에서 그들의 반대자들에 동의하며, 이것은 이미 과학주의적이거나 과학주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한상기, 2013: 289);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Three Views on Creation and Evolution)의 젊은 지구 창조론 대표인 폴 넬슨(Paul Nelson)과 존 마크 레이놀즈(John Mark Reynolds)는 자기 진영이 ‘1등급 성경해석 +2등급 과학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한다.(pp.91-93) ‘2등급 과학해석’이라고 자인한 점에는, 비록 찬성하지 않을 창조과학자들이 있겠지만, 나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1등급 성경해석’이라는 평가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 책에선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은 문제점이 상당해서 1등급이라고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책 전체는 창조과학 진영의 성경해석은 2등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다.”(윤철민, 2013: 12-13); 김기태(전 고신대 생물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우선 창조과학회에서는 과학적 창조론을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그러한 과학적 증거로부터의 추론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용어에서는 ‘계시에 힘입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세운 창조에 대한 논의’라는 의미가 유추된다. 창조론을 이야기 하면서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우선 ‘과학과 신앙’이라는 대결 구도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며, 창조론을 사람들에게 신뢰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적 증거나 믿음을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사실들과 논의에만 의존해서 창조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용어에서 풍기는 기본적인 뉘앙스는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과학주의적 발상이다.”(김기태, 1994: 227)

런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나온 질문이기도 했다.²⁹⁾ 그 당시 한국 창조과학회의 한운봉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조는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창조과학회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할 뿐입니다.” 창조과학회의 이은일 교수(고려대학교)는 “창조과학회가 과학적으로 지구의 연대가 6천 년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성경적 해석의 입장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³⁰⁾고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지구 나이에 관한> 사진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이종현 교수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함³¹⁾)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구약연대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주장이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 대주교가 1650년에 출판한 “구약연대기(Annales Veteris Testamenti)”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주전(BC) 4004년 10월 23일이다. 어셔 대주교의 주장을 로이드 주교에 의해 킹제임스역 주해성경 난외주에 첨가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 1650년 아일랜드교회의 아르마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는 “구약연대기”(Annales Veteris Testamenti)란 논문에서 지구탄생 연대는 주전 4004년 10월 23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몇 년 더 일찍 존 아리트풋(John Lightfoot)은 주전 3929년이라고 주장했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이 비슷한 지구 탄생연도를 주장했었다. 알려진 바로는 당대의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도 주전 3984년이라고 주장했다. (...) 윌리엄 로이드(William Lloyd) 주교의 1701년판 킹제임스역 주해성경 난외주에 어셔 연대기가 첨가되면서, 다른 연대기와는 달리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킹제임스역을 사랑하던 근본주의적 신자들은 어셔 연대기를 킹제임스역과 함께 교회에서 전수된 소중한 ‘근본’으로 보기 쉬었

29) <https://youtu.be/pDiR0YWfkrw>; “박성진, 그래도 지구 나이는 6000년이다?”

30) https://youtu.be/c_vMXVYfIxc; [CBS뉴스]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 아니야"

31) <https://youtu.be/JPTqA0XyuX8>;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 젊은 지구 과학적 신학적 철학적 고찰(아이오와 주립대 이종현 교수)”

을 것이다.”(윤철민, 2013: 18-20) 어서가 주장한 구약의 연대인 4004년에 신약의 연대 A.D. 2023년, 즉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A.D)2000년을 더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6000년이 된다는 것이다.(4004년+2023년=6027년) 창조과학회가 젊은 지구론(The Young Earth Creation)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서 대주교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회는 지구 연대에 대해서 대략 600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구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³²⁾ 우종학 교수가 언급했듯이, 완벽한 인간의 성경 해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조 방법(‘어떻게’ 창조하였는지에 대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창조 기사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성경 해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 창조기사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즉 창조의 방법에 관해서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우종학, 2017: 268)

지구 연대에 대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젊은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6000년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극단적 환원주의자와 같이 “지구 연대=6000년=절대적 진리(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젊은지구론’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젊은 지구론만이 창조과학의 유일한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다.”(임택규, 2016: 35) 자신의 주장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연대를 차치(且置)해 두고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주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날(day)을 뜻하는 히브리어 욘(yōm, יוֹ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³⁾ 로렌

32)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8B%A0%EC%A7%84%ED%99%94%EB%A1%A0>. 위키백과, “유신진화론”; 위키백과에 따르면 환경직 목사도 유신진화론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신적 진화론이 과학적 서술인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종합하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근래(近來)에 하가 간에 창조적 진화론(創造的進化論)을 주장하는 이가 많다. 이에 의하여 하나님/하느님께서 각색 종류의 생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 종류 안에서 진화와 변이(變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자료로는 제일 합리적인 결론이며, 이야말로 성서적이다. <태초에 하나님/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신앙은 미동(微動)도 안 하는 것이다(1947.3.8.).”

33)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지만, 창조주간의 하루(YOM)에 대한 해석에는 다른 견해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초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한윤봉, 2021: <국문초록>) 한윤봉은 Yom을 유대인의 안식일 계명 준수를 근거로 24시간으로 이해한다.

D. 하스마(Loren D. Haarsma)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쓴, 『오리진』(Origins: Christian perspectives on creation, evolution, and intelligent design)에서 기술하였듯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어릴 때는 주로 젊은 지구론적 해석으로 창세기를 배웠지만, 그 어떤 선생님이나 목사님도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Haarsma and Haarsma, 2012: 27) 데이비드 키네먼(David Kinnaman)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논쟁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지구창조론자’(young-earth creationist)는 ‘오랜 지구 창조론자’(old-earth creationist)나 유신론적 진화론자(theistic evolutionist)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자신들을 배교자로 보는 태도를 불편할 수 있다. 아울러 진화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조의 메커니즘이라고 믿는 신앙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에게 지적 자만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문제나 논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Kinnaman, 2015: 202-203) 이종학 교수는 겸손함의 필요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이 자연이라는 실재에 대한 영원한 근사에 불과하듯, 신학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영원한 근사에 불과하다. 그러니 과학의 겸손과 더불어 신학 역시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우종학, 2017: 307-308) 참고로 기독교 전통 창조설에 대한 김정형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창세기에 대한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에 기초한 창조설은 기독교 전통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기독교 전통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아온 것은 성서문자주의에 기초한 창조설이 아니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등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담긴 창조론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사도신경”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를 믿습니다.-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김정형, 2020: 60-61)

3) 동성애 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유사교리화의 문제다. 동성애라든가? 친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조차도 듣기에 좀 그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한윤봉 (2021). “창세기 1장의 ‘YOM’에 대한 성경적 논증과 과학적 이해”. 한국창조과학회. 『Origin Research Journal』 . 1(1). 121-131.

내뽐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무슨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현상이 나타나면 동성애를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동성애와 무엇무엇 때문에 지진/그런 사단이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말이다. 쓰나미의 발생에도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 등의 발생의 원인에도 동성애자들이 포함되고 이들로 인해서 동성애자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식의 주장이 올려 퍼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말이다. “호주 산불은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며 예언의 성취라는 식의 심판론은 지진이나 홍수, 쓰나미 등으로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정창일·신상목, 2020)³⁴ 과거 전광훈 목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기독교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동성애자들을 격리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국가질병으로 분류하고, 메르스나 한센병처럼 격리 치료하겠다.”고 말했다.(이승규, 2016)³⁵ 심지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혜숙 교수는 동성애자를 우리의 이웃에서 배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 교수에 의하면 동성애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동성애를 사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사역은 동성애를 배제한다 ... 간단히 말하면, 예수의 사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동성애, 성전환, 양성애, 성소수자(LGBTQ+) 등을 배제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한다.”(손혜숙, 2019: 48-49; 강상우, 2023 참조)³⁶

이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아젠다(Social Agenda)가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는 동성애 문제를 이 사회의 가장 높은 아젠다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다른 사회적 아젠다에 관한 관심을 무너트리는 경향이 있다. “동성애=유사교리화⇨타 아젠다에 절대적 우위/價値”이라는 도식이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극단적인 도식은 심지어 ‘동성애=빨갱이/종북’이라는 이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 이슈가

34) <http://v.daum.net/v/20200114000158013>; 장창일·신상목, “5개월째 거대한 산불에 신음 ... ‘호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국민일보> (2020.01.14.)

3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807079>; 이승규, “전광훈 목사, ‘동성애자 격리 치료하는 법 만들겠다’” <CBS노컷뉴스> (2016.03.09.)

36) 손호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라고 바울은 말한다. 여기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손호현, 2017: 161) 원론적으로는 물론 맞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자를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in Christ) 오는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길 원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세속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동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긍정적 견해를 가진 후보=빨갱이나 종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반대/撤回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출현한 신조어가 ‘종북게이’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무엇일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a sin, 信仰的罪)로 규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된 이들에게 혐오에 가까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와 친동성애자에게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색깔 논쟁(Ideological arguments, 理念論爭)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의 소돔 이야기에서도, 레위기에서나, 사사기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레위기 기자는 동성애를 ‘가증한’³⁷⁾(תּוֹעֵבָה, tow’ebah, “it is to’evah [abomination, detestable], <OJB> 레18:22b³⁸⁾) 것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동성애가 ‘역리’³⁹⁾(逆理, 롬1:26; “본성을 거스른”, παρα φύσιν [para physin, unnatural, against nature]) 즉 자연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죄가 되는 것일까?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벗어난(逸脫한) 행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라크는 동성애라는 용어 대신 ‘성적일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Reuter)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CMC, The Iraqi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는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대신 ‘성적 일탈’(sexual deviance)이라

37) “사실 ‘가증한 일’은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기에만 나오는 용어다(레18:22, 26, 27, 29, 30, 20:13),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제도의 혐오스럽고 비윤리적 행위들을 지적할 때 쓰인다. 물론 70인역에서 תּוֹעֵבָה tow’ebah에 관한 번역어인 bdelu,gma(bdelygma)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나 또한 도덕적으로 가증한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신12:31; 18:9, 12; 20:18; 왕상14:24; 왕하16:3; 21:2; 대하28:3; 33:2; 36:14; 사44:19.)”(이민규, 2017: 311-312)

38) “Do not practice homosexuality, having sex with another man as with a woman. It is a detestable sin.” (Leviticus18:22) <NLT, New Living Translation>

39) “플라톤(Plato)은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역리적’이라고 말한다.(Leg. 636.b,c). 오비디우스(P. N. Ovidius)는 동성애에 연루된 한 소녀가 비록 자신이 그 일에 연루되긴 하였지만, ‘자연이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Metamorphoses 9,758) 시쿨루스(D. Siculus)는 어떤 사람이 상대를 여자로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던 경우를 두고 ‘역리의 결혼’이라 표현하며, 또한 이성 사이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리켜 ‘순리대로의 성관계’라 표현하고 있다.”(최승락, 2016: 219; Koester, 1974: 9:263 참조) Koester, H. (1974). "Physis" G.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9:251-277.

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별’(gender)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김민수, 2023)⁴⁰)

창세기를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신앙적 차원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정상적인 성행위는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25 절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24.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4-25, <개역개정>). 특히 “남자가 …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창2:24)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적 성행위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 존 R. W. 스토틀(John R. W. Stott) 목사님의 분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한 몸이 되고 이 신성한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혼의 구성요소다.

“이리므로”

“남자가”

(단수는 결혼이 두 개인의 배타적 연합임을 나타낸다)

“부모를 떠나”

(공개적인 사회적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은 애정으로 연합하는 헌신 혹은 언약으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이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성관계에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관계는 결혼 언약의 표상이자 봉인이고, 그에 대해서는 일찍이 어떠한 수치나 당혹의 그림자도 드리워진 적이 없다. 24절)(Stott, 2014: 520 참조).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公開性] 성관계로 완성되어지는데(‘한 몸을 이룸’)[完全性], 성관계의 대상은 한(一) 쌍(雙)의 이성(異性) 즉 남녀(男女) 부부(夫婦)간으로 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식과 더불어 쾌락이 성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강상우, 2022) 대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다”(창1:28) 이는 성행위의 목적이 생식(生殖, procreation, 再生産)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성경 역본들은 구체적으로 자식을 낳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생

40) <https://edition.cnn.com/2023/08/09/middleeast/iraq-bans-homosexuality-media-scli-intl/index.html>; “Iraq bans media from using term ‘homosexuality,’ says they must use ‘sexual deviance’”. (Wed August 9, 2023); <http://v.daum.net/v/20230809084353935>; 신유리 “이라크, ‘동성애’ 표현 금지… ‘성적일탈’로 쓰라” <연합뉴스>. (2023.08.09.); <http://v.daum.net/v/20230809040633369>; 김민수, “이라크, 미디어서 ‘동성애’ 단어 사용 금지… ‘성적 일탈’로 표현해야.” <뉴스1>. (2023.08.09.);

식만을 성행위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식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快樂, pleasure)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보면 부부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雅歌, Song of Songs)서와 「잠언」(箴言, Proverbs)도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성경적 성행위의 목적이 생식(재생산)과 성적 즐거움(쾌락)이라는 점에서 어느 특정한 것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만 할 것이다. 생식만을 강조한 과거 일부 교부(敎父)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개역개정>; cf.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공동번역>, “Have a lot of children!”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Have many children and grow in number[To be fruitful and multiply]” <EXB, Expanded Bible>)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7:3, <개역개정>, cf. ‘Husbands and wives should be fair with each other about having sex.’ <CEV>)⁴¹⁾

그렇다면 성경적 성행위와 동성애를 [표]를 통해서 비교함으로써, 왜 동성애가 비성경적 성행위로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行態)임을 그리고 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성경적 성행위 기준과 동성애 비교]

구분	결혼 유·무	성행위 대상	성행위 목적	성행위 유형
이성혼(異性婚)	결혼과 유관	한쌍(一雙)의 남녀(異性)	생식과 쾌락(성적 즐거움)의 조화**	성경적 성행위
동성혼(同性婚)	결혼*과 유/무관	동성(同性)	생식과 무관 상대적으로 쾌락 추구	비성경적 성행위*** 성적 일탈행위

*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간통(姦通)의 경우와 비슷한데 간통이 실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비성경적 성행위임과 동시에 성적 일탈행위의 한 행태에 해당한다.

** 이는 결혼 관계에서 출산 가능성을 배제한 성관계(sex without proliferation)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완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성관계는 가능하고 불임 부부간의 성행위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식과 쾌락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의

41) “The husband should meet his wife’s sexual needs, and the wife should do the same for her husband.” <CEB, Common English Bible> (…)⁵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전7:5상, <개역개정>, <개역한글>, “5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고전7:5상, <표준새번역>; <새번역>), “5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고전7:5상, <공동번역>; <공동번역개정판>), “5 So don't refuse sex to each other”(1 Corinthians 7:5a, <CEV>, “Do not refuse to give your bodies to[refuse sex to;deprive]each other,” <EXB>, “Do not deprive one another sexually—except when you agree for a time,” <HCSB,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Do not deprive each other of sexual relations,” <NLT, New Living Translation>)

정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 다만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참고로 성경적 성행위에서 벗어난 것은 비(非)성경적 성행위로 성적 일탈행위(性的逸脫行爲)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 성행위=성행위-비성경적 성행위(not a sin). 비성경적 성행위>≠성적일탈행위(sin). 극단적으로 생식만을 강조하는 성행위는 비성경적 성행위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적 일탈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 강상우(2022)

동성애는 성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할 때, 성적 일탈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동성애는 간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성적일탈, 간음=성적일탈. 동성애가 성적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적일탈과 비교했을 때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동성애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 연구자에게서 볼 수 있다.(Richards, 1999: 201; Lutzer, 2011: 124; 김진규, 2017: 106-107; 강상우, 2017; 이태희, 2016: 822 참조) 특히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는 자신의 책,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Sex, Dissidence and Damnation: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에서 적고 있듯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원칙적 태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가 동성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성유리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가 동성애자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돌팔매를 맞고 있는 간부(姦婦)(간음은 구약에서 동성애처럼 중죄였다)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돌을 맞고 있는 간부에게는 ‘어서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거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용서와 이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그가 추구한 바였다. 동성애에 대한 그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Richards, 1999: 201; 강상우, 2023, 첨가 []와 강조는 본 연구자)⁴²⁾

42)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간음이나 탐욕,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포르노 등의 죄와 분리된 특별한 것으로 대해선 안 된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Lutzer, 2011: 124) 강조는 본 연구자); 이태희 국제변호사도 같은 견해인 것 같다. “성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질서의 핵심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셨다(출20:14) 따라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그리고 동성간의 성관계는 전부 간음이며, 이와 같은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이태희, 2016: 822);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레18:22; 20:13) 등을 포함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언급한 죄들은 모두 제7계명을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김진규, 2017: 106-107); 이슬람도 동성애를 간음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슬람법의 법원의 하나인 끼야쓰(Qiyas, 추론 또는 유추)는 “원전에 판결이 없는 사안(파르으)을 합법적 이유(일라)를 가진 원전의 사안(아스)으로 판결(후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The Rule of Qiyas』에 제시된 말레이시아의 끼야쓰 사례들을 보면 남녀 동성애를 간음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임병필, 2018: 155-156)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행태인 동성애와 간음의 한 형태인 간통(姦通)을 [표: 동성애와 간통]을 통해 비교해 보자. 동성애와 간통은 비록 실정법상의 죄(a crime)아니지만 신앙적 죄(a sin)이라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행위의 범주를 위배했기 때문이다. 간통의 경우 과거에는 실정법상의 죄(a crime)였으며, 간통을 행한 상간자를 형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후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상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통을 범한 상간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로, 죄인인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형법이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동성애는 신앙적인 죄이며, 그를 행하는 이들은 죄인(a sinner)인 것이다. 그렇기에 상간자들이 간통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동성애와 관련해서 게이 리딩이나 퀴어 리딩(Gay Reading and Queer Reading)을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전통/정통적 해석에서 벗어나 기이하고 퀴어한 해석을 하는 퀴어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퀴어신학이나 동성애 신학은 이단이거나 이단적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거나-삼위일체 하나님을 쓰리섬(Threesome)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이나-스스로 자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자기 모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가히 신성모독적이기 때문이다.

[표: 동성애와 간통]

동성애		간통		
			현재	과거
동성애 행위	신앙적 죄 a sin(O) a crime(X)	간통 행위	신앙적 죄 a sin(O) a crime(X)	신앙적/ 실정법상 죄 a sin(O) a crime(O)
동성애 행위자	신앙적 죄인 a sinner(O) a criminal(X)	간통 행위자 (상간자)	신앙적 죄인 a sinner(O) a criminal(X)	신앙적/ 실정법상 죄인 a sinner(O) a criminal(O)
동성애/ 퀴어신학 존재 gay/ queer theology	이단(heresy) 또는 이단적(heretical)	간통 신학 부재(不在)	이단과 무관(無關)	

강상우(2023)는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간음한 여인의 행위가 죄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왜 그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

를 묻지 않으셨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에게 왜 그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지에 그 원인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원인이 유전이네, 환경이네, 양육이네 무엇이네 무엇이네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성애의 원인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행위는 확실한 죄(a sin)고 명백하게 죄악된 행위(overtly sinful behavior)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⁴³⁾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에게 똑같이 “가서 다시는 동성애 행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칭의+성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구세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란 말 그대로 성화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적 삶을 사는 것은 삶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동성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적 삶과 결별(訣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세속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동성애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적 행위에서 떠날 것은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나—이 경우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동성애자들은 혐오하는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지양(止揚)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재현 교수는 죄를 근원적인 죄(The Sin)와 파생된 죄들(sins)로 구분한다. 동성애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가 아닌 파생된 윤리적 삶과 관련된 죄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성애와 같은 파생된 죄들은 윤리적 삶과 관련되기에 동성애와 단절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록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근원적인 죄(The Sin)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들(sins)을 구분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문제는 파생적 죄들을 해결하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이

43)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8:11하, <개역개정>,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공동번역 개정판>,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NIV>, ‘go, and sin no more.’ <KJV>, ‘You may go now, but don't sin anymore.’ <CEV>, ‘Go and practice chet[πᾶσι] no more.’ <OJB>, ‘πορεύου, καὶ μηκέτι ἁμάρτανε [poreuou, kai meketi hamaptane]’ 강조와 첨가는 본 연구자)고 하신 것이다.”(강상우, 2023)

다. 물론 파생적 죄들이 윤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구원은 없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파생적인 죄들 중 하나이기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이재현, 2016: 180-181).

성적 일탈행위를 하는 간음과 간통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단적 혐오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간통을 범한 이들을 향해 이단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에게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가? 왜 이단이라고 발언하며 더 나아가서 중북계이라는 색깔 프레임을 씌우는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만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들이 동성애적 삶과 결별하는 것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行爲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수 많은 죄들 중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One of the sins within the Church community is homosexuality.)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4) 여성 목사안수 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

여성 목사안수 문제도 일부 보수주의적 교회 공동체에서는 유사교리로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여성 목사안수는 해석과 전통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접적으로 여성 목사안수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많은 교단들이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앞서 언급한 동성애는 게이리딩 Gay reading/ Queer reading과 같은 해석을 하는 연구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나 교회나 교단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친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여성 목사안수 문제와는 질적으로 결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부 보수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는 것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것일까? 여성 목사안수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텍스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文化論]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만고불변의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그것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하는지[普遍論]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본문들을 후자로 읽는다는 것이다. 보편론에 입각해서 본문들을 이해함으로써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것이다.(이승구, 2012: 65; 최종호,

2010: 177; 이국진, 2020: 92 참조)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이들은 창조 순서(順序)와 타락(墮落)을 강조한다(창2-3장 참조). 「창세기」 1장 기사보다는 2장과 3장의 기사를 더 중시한다.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다”(“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2:18)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자가 먼저 시험에 빠졌다.”, “여자가 먼저 시험에 빠진 징계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3:16)라는 타락에 강조점을 둔다. 창조 순서와 타락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남자 > 여자라는 도식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항구적 창조질서(恒久的創造秩序, Perpetual Creation Order)라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타락 순서는 창조질서로서 여자와 남자관계에 있어서 영구불변의 질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조의 순서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름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해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書信) 내용의 해석과 이해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ἀνὴρ ἔστυν κεφαλή τῆς γυναικός, anēr estin kephalē tēs gynaikos]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엡5:23) “...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전11:3) 일종의 “하나님 > 그리스도 > 남자 > 여자”라는 계층구조(Heirarchy, 階層構造)와 더불어, “창조 순서(남자가 먼저 창조)=머리(아내의 머리 됨)=권위(남성의 권위 아래 복종)”라는 도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 케팔레(κεφαλή, kephalē, ראש, ro’sh)는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 은유적인 의미가 혼합된 다의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김성이·원준금, 2020: 34-35; 원준금, 2010: 74-75; 김광수, 1999: 162-163 참조) 문자/여자적(如字的)인 의미에 강하게 집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머리는 원천(源泉)이라는 의미보다는 권위(權威)/支配者/統治權 [headship]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게 된다. 머리라는 단어가 원천이라는 의미를 지지는 것으로 사용되길 원했다면 헬라어 케팔레(kephalē)가 아닌 아르케(ἀρχή, archē)를 성경 저자가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Heinrich Schlier)(김성이·원준금, 2020: 37; 원준금, 2010: 76) 참고로 이승구 교수와 같이 여성 목사안수를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여성 목사안수문제와 관련된 본문들을 항구적(everlasting)인 창조질서[萬古不變 眞理]와 관련해서 보편적인 금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즉 여성 목사안수는 부정되어야 하는 정통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손석태, 2009: 246-247; 이관직, 1997: 295-296 참조) 왜냐하면 정승원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로버트 C. 스프롤(Robert C. Sproul)이 기술하였던 것처럼 “창조 규정은 나중에 성경 계시에 의해 분명하게 수정되기

본 문	고전11:2-15 “머리에 쓰라”, 고전14:33b-35(혹은 14:34-36) “잠잠하라” 딤편2:8-15 “가르치지 말라” 갈3:2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엡5:22-24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	--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하는 교단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는 해석의 문제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목사안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성 목사안수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해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반대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성 목사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목사안수 찬성’하는 견해와 더불어 그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한 축을 이루는 여성들이/여성신학자들이나/여성 목회자들이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도전 과격한 페미니즘의 도전(서창원, 2004a: 205; 김길성, 1996: 124; 김관직, 1997: 296; 박아론, 1996: 11이하; 반대는 심창섭, 1997: 193-194)⁴⁷⁾이다거나 WCC(김성봉, 2012: 10)⁴⁸⁾, 심지어 동성애자(장승원, 2021: 89-90 참조)⁴⁹⁾ 등⁵⁰⁾과 엮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인권/女權 강화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밖의 불온(不穩)/불순(不純)한 세력들이 꾀임에 의한 문제 제기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색깔 논쟁(ideological controversy, 理念論爭)으로까지 끌고 갈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권 강화 주장=

46) “문화론은 본문의 내용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만 한정된 문화적 요구로 본다. 보편론은 반대로 같은 내용을 모든 시대와 지역에 해당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김성이·원준금, 2020: 35; 원준금, 2010: 73 참조)

47) “... 사실 교회 미국에서의 여성 안수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일어났다. ... 고로 여성 안수의 효시는 여권주의자들에게만 돌릴 필요없이 바로 이러한 교회내의 실천적이고 정황적인 환경이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심창섭, 1997: 193, 193-194); 1935년 제24회 총회의 연구보고서인 “창세기 저작문제와 김춘배목사 성경해석문제”의 주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길성, 1996: 123-124); 박아론도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여권확장주의에서 찾는다.(박아론, 1996: 11이하); “지금의 논란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과 함께 세속적인 여권신장 운동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서창원, 2004a: 205)

48) “여성 안수의 파도는 먼저 세계교회협의회가 그 원인이 되었다. 1차 회의가 1848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목회직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결과들에 대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교회, 가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 작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와 구세군이 특히 안수 받은 여목사로서 여성회원 가입을 지지했다.”(김성봉, 2012: 10)

49) “창조질서를 넘어서 남녀에게 동질성을 부여할 경우 자칫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죄로 규정하는 규범은 성경뿐만 아니라 창조질서 역시 그러한 규범이다.”(장승원, 2021: 89-90)

50) 문효식은 여성 목사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왜 안수를 받고자 하는가?”, “교단은 왜 여성 안수를 하고자 하는가?”(문효식, 2011, 41-43, “IV. 현실적인 문제”)

여성 목사안수 허용=불온/불순한 세력의 공작과 음모=WCC/페미니즘, 극단적으로n 흑시 빨갱이(?)/종북/주사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프레임의 전환은 아깝게도 한국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 제기/反撥=종북 좌빨'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여성 목사안수를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영향으로만 인한 것일까? 교회 공동체의 자매님이 그렇게 무지하며 무사변적(無思辨的)인 이들일까? 주체의식도 없고 불온한 자들의 공작에 쉽게 빠져드는 이들일까? 여성 목사안수를 주장하는 것이 사상/신앙검증(思想/信仰檢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일까? 교회 공동체 내의 자매님들의 여권 강화와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공동체 내에서 자생(自生)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여성의 목사안수 여부의 문제가 창조질서, 그것도 항구적인 창조질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성 목사안수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曰可曰否)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여성 안수문제가 창조질서의 문제라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그 자체로써 만고불변의 신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보수교단의 목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에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말 그대로 항구적 창조질서이기 때문에. “1996년에 총신교단은 여성안수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러한 지위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서 여성안수를 토론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고경태 목사, <주님의교회>)⁵¹⁾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반대하는 보수 교단에서 2017년부터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특별위원회를 두는 이러한 행동은 여성의 목사안수를 반대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여성 목사안수를 반대하든 찬성하든지와는 관계없이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색깔 논쟁이나 다른 문제들과 연결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 안수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구적 창조질서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여성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속한 교단의 전통/해석이라고 언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찬성하는 이들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51) [https://v.daum.net/v/20230627174806622?f=o.](https://v.daum.net/v/20230627174806622?f=o;); 천수연.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여성 목사안수와는 다르다? 예정합동, 갈 길 먼 여성 안수”. <노컷뉴스> (2023.06.27.)

5) 주초(酒草/술·담배)문제의 유사교리화

지금은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과거에 술·담배/酒草問題는 거의 교리 수준이었다.(윤은순, 2010: 5 참조) 지금도 보수 교단들은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나이를 많이 먹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술과 담배의 문제 즉 연초문제는 교리 수준에서 기능을 한다. 성도는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술과 담배를 하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교수의 경우 음주량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진 것 같다. 아마 주초문제가 교리 수준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그분 선교사님[Eugene Bell/배유지] 후손 아니여? 여러 세대 하나님을 믿은 집안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데 음주 그것도 그 주량이 그렇게 많아? 혹시 그것 잘못된 정보 아니여?”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선교님의 후손이 그것도 신앙의 전통이 깊은 집안의 후손이 음주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는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기사는 더욱 술과 담배에 대해 교리서 수준의 입장을 지닌 이들에게 놀라게 할 것이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과 담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유명세가 있는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하루에 담배를 3개비씩, 식후에 한 대씩 피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김정화, 2000: 34) 교황께서도 담배를 하신다는 기사다. 그것도 식후에 한 대씩, 3개비를 피운다는 것이다. 껌연(喫煙)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교황들도 흡연을 하셨던 것이다.

담배를 대하는 교황들의 자세는 사뭇 다르다. 20세기 중반, 비슷한 시기에 즉위한 비오 12세와 요한 23세는 모두 담배를 좋아했다. 비오 12세는 폐렴이 심해져 담배를 끊기 전까지는 코담배를 즐겼다고 한다. 요한 23세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티칸은 한때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렸다. 사제들과 관광객들은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흡연을 할 수 있었다. 2002년, 비흡연자인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청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시켰다. 이후 흡연율은 줄었지만, 바티칸 곳곳에서 담배를 문 사제를 찾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김지현, 2014)⁵²⁾

52) <http://v.daum.net/v/20140811114807662>; 김지현, “교황도 담배와 술을 할까요?” <한국일보> (2014.08.11.)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건 교황의 자유다. 가톨릭교회는 담배와 술을 허한다. 성경에서는 향락주의를 경고하지만, 이는 결코 먹거리에 대한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과한 건 금물이다.”

술과 관련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PP. II, 1920.05.08.~2005.04.02. 본명은 Karol Józef Wojty ła)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딴 칵테일(폴란드산 보드카가 3부량 들어 있음)을 마시는 최초의 교황”으로도 알려져 있다.(박은경, 2020: 245-246)⁵³⁾ 개신교는 어떨까? 종교개혁자들도 술 앞에서 맥을 못 추었다고 한다. 금주법이 시행되던 미국에서는 그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그 기간 동안에 성찬식을 빌미로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한다. “가톨릭을 뛰쳐나와 개신교를 세운 캘빈이나 루터도 술 앞에서 맥을 못 추던 사람이었으며, 금주법 시대 미국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핑계 삼아 매년 수백만 갤런의 포도주를 마셔 댔다.”(김학민, 2012: 29) 맥주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은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그의 부인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Katie)’일 것이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The Diet of Worms of 1521, Reichstag zu Worms)에서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맥주가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개인적으로 루터의 당당한 모습에는 성령의 불드심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싶다. 이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까? ☺) 선제후였던 에리히 1세가 보낸 아인베크 맥주(Einbecker Bier)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강희의 다음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와 교황을 비판하는 글이 멀리 퍼지면서 문제가 되자,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Karl V)는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루터를 불러 심문했다. 이때 한 영주가 루터에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라는 격려와 함께 아인베크(Einbeck) 지방의 맥주 한 통을 선사했다. 루터는 이 맥주 1리터를 단숨에 마신 다음에 황제 앞에 나섰다. 맥주는 용기를 주었고 루터는 본인의 논리를 마음껏 주장했다.”(이강희, 2019: 212-213, 212 페이지의 ‘그림 설명의 글’ 참조; 백경학, 2018: 229-231 참조) 무라카미 미쓰루(Murakami Mitsuru)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저서인 『The New World Guide to Beer』⁵⁴⁾를 원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At the Diet of Worms, Martin Luther was fortified with Einbeck beer ….”(루터는 아인베크 맥주에 힘을 얻어 보름스 제국회의장으로 나아갔다)(Murakami, 2012: 109) 루터의 부인은 폰 보라는 직접 맥주를 제조해서 심지어 판매까지 했다고 한다. 그 질이 매우 좋아 루터는 아내 폰 보라가 만든 맥주의 질을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즐겨 마셨다고 한다. 지금도 루터 맥주를 비텐베르크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루터의 아내 폰 보라가 빚었던 라거의 전통을 이어온

53) <http://v.daum.net/v/20050402053318373>; 서한기, “요한 바오로 2세는 누구? 교회잘못 세상에 '고해성사' <연합뉴스>. (2005.04.02.)

54) Jackson, Michael (1988). The New World Guild to Beer. London. Auarto.

맥주라고 한다.(이윤기, 2019)⁵⁵⁾ 그뿐만 아니라, 중세 수도원이라는 장소가 술집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장소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수도원이 방문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했다. 와인과 맥주도 그중 일부였다. 수도사들은 계획대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규칙적으로 양조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글로 전수되는 레시피는 평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이었다. 수도원 맥주는 뛰어난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관혼상제를 함께 했다. 과도한 음주는 열시의 대상이었지만 음주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수도사들에게도 과음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 수도원은 자연스럽게 맥주 양조장을 하나씩 품고 있었다. 거대한 양조장이 있던 스위스 장크트 갈렌 수도원과 자급자족하기 위해 맥주를 만든 트라피스트 수도원, 천년의 양조 역사를 품은 벨텐부르크 수도원은 맥주와 수도원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중세시대 수도원은 술집의 역할을 대신하던 공간이었다.(유한샘, 2023)⁵⁶⁾

중세 때에는 맥주와 빵으로 월급을 대신했다. 수녀와 신부님들은 술과 담배를 차등해서 받았다. 영국 청교도가 보스턴에 도착하게 된 것도 술, 즉 맥주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맥주 때문에 목적지가 보스턴 근처의 플리머스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날 만큼 절실했던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도 그랬다. 1620년 선장 크리스토퍼 존스의 지휘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땅을 떠났을 때 이들의 애초 목적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아래에 있는 버지니아주였지만, 실제로 도착한 곳은 그보다 위에 있는 보스턴 근처였다. 왜 목적지가 바뀌었을까? 초기 필그림 파더스 중 한 사람이 쓴 일기에 그 이유가 나온다. ‘우리에게 더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맥주가 더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맥주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청교도들의 인내심도 바닥났고, 결국 계획을 앞당겨 보스턴 플리머스에 닿을 내리게 된 것이다.(백경학, 2018: 49-50)

담배는 어땠을까? 초기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담배(잎담배)를 지불했다고 한다. 경제가 담배 농사에 달려 있었기에 담배 농사가 잘 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담배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사례비를 (많이/ 또는 꼬박꼬박)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목회자들이 꺼렸다고 한다.[담배 농사 부진=교인 소득 부족=교회 재정 부족=목회자 사례비 부족=목회자 부임 회피=목회지 공석] 에릭 번즈(Eric

55) <http://v.daum.net/v/20191007145700678>; 이윤기, “맥주가 없어도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 <오마이뉴스>. (2019.10.07.)

56) <http://v.daum.net/v/20230527112111264>; 유한샘, “특별한 레시피, 수도원 맥주는 뛰어난 수밖에 없었다 [유한샘의 맥주실록]” <오마이뉴스>. (2023.05.27.)

Burns)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설교대에서 우렁차게 설교되는 훌륭한 설교 중에는 좋은 담배를 재배하는 일의 중요성과 적절한 가공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이 종종 들어 있었다.’ 또한 성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돌투성이거나 산성이거나 영양분이 고갈된 토지, 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대농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했다. 휴 존스 목사(Reverend Hugh Jones)는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남겼다. ‘담배질이 좋지 않은 교구들은 오랫동안 목사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Burns, 2015: 151) 개인적으로 부흥한 교회 이야기를 들을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교회[全羅南道 務安郡 所在]가 부흥하게 된 것은 과거 그곳이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담배 농사는 하나님의 뜻/信仰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담배 농사를 다른 농사로 바꾸면서 이 마을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만약 그러한 체험을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담배와 관련된 초기 미국 교회의 역사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먼 곳의 이야기 말고 이 나라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는다면 뒤로 까무러칠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세기 말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입구에 요즘은 볼 수 없는 특이한 나무 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티(T)자 모양 걸이였는데, 그것은 바로 장죽(長竹)걸이였습니다. 어른들이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다 교회 오시면 그걸 그 앞에 걸어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다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지요. 사경회라고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 사경회 중 휴식 시간에는 막걸리를 돌리거나 막초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막초는 담뱃잎을 말린 것인데, 그걸 말아서 쉬는 시간에 피울 수 있도록 나눠준 것이지요. 초기에는 이렇게 담배가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김형국, 2010: 66) 새사람으로 변화받은 삶을 위해 온 집회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 말이 된다 말인가? 그것도 아예 교회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대 걸이를 준비해 놓았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휴식 시간에 막걸리와 담배를 제공했다니 말이다. 여기서 술과 담배에 대한 사례는 여기서 마치고 술과 담배와 관련해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자.

성경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만—생각보다 많다—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다. 왜냐면 담배가 원산지인 아메리카에서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해진 시기가 콜럼버스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술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바울의 태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 묘사한 이사야서에서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마태(Matthew)와 누가(Luke)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a man gluttonous, and a winebibber’, <KJV>, ‘A zolel (glutton) and a shikkor (drunkard)’ <OJB>)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단순히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He eats too much and drinks too much wine [He’s a glutton and a drunkard]’ <EXB>, ‘That man eats and drinks too much!’ <CEV>, ‘φάγος καὶ οἶνοπότης’[phagos kai oivopotēs])’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마11:19)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눅7:34, <개역개정>)

예수님에 대한 마태와 누가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김형국 목사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수님 자신의 별명 중 하나가 ‘음식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였습니다.(마11:19; 눅7:34 참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김형국, 2010: 37)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발생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5:23) 술과 관련해서 가장 압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에 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역개정>은 포도주로 나오나 <새번역>은 ‘술’로 번역하고 있다. 하여간에 술(포도주, 알코올)이 사용된다. “6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야훼,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살진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사25:6, <새번역>)⁵⁷⁾ 참고로 십일조 규례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 「신명기」 14장 26절에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신14:26, 강조는 본 연구자). 독주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other fermented drink(NIV), strong[er] drink, intoxicating liquor, liquor, similar

57) 이슬람교의 『꾸란』의 천국에도 술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알라의 은총을 입은 자 그들은 금으로 장식된 금좌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보며 기대니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며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득한 잔들로 봉사하더라 그것으로 그들은 두통을 앓지도 취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취함에 따라 과일을 선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며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며 잘 보호된 진주와 같더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수라 56:15-24절).(김승호, 2010: 256)

drink, other alcoholic drink, cider, shekhar(fermented drink), an alcoholic beverage made from grain, beer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에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술/포도주에 대해서 왜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교리처럼 다루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선교사들의 몸으로 접한 초기 한국 사회의 상황과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상황을 본 선교사들은 음주·흡연의 각종 피해를 거론하면서 이를 금지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여러 선교사들의 눈에 조선의 음주·흡연습관이 특히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데에는 그들의 신앙적·신학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였다. 내한 선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대각성 운동의 세례를 받은 엄격한 청교도 신앙의 소지자들이었다. (...) 이들은 전형적인 '청교도 타입(puritan type)'의 사람들로서 금욕과 절제를 생활 태도로 삼고 총과 담배, 카드놀이까지 기독교인들이 탐닉해서는 안 되는 죄로 여겼다. 청교도적,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신앙전통 및 신학적 교리를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과 윤리를 피선교지 조선인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키고자 했다. 청교도적, 경건적 윤리관을 가졌던 이들에게 조선의 음주, 흡연의 성행은 '타락'과 무절제, 게으름의 전형적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를 개 혁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그들의 사명이자 교인된 도리로 여겨졌다.(윤은순, 2010: 8-9)

선교사들의 술과 담배에 대한 태도는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이다. “예수를 믿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결심하는 조선 교인들에게 제사·축첩 금지와 아울러 금주·금연은 이전과 구별되는 신자의 본보기로 여겨졌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금주 금연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금주금연을 결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도 있었다.”(윤은순, 2010: 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외부에 속한 일반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들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기독교인=주초(술/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도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기독교인=제사·축첩 금지’라는 도식도 같은 이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술과 담배에 대한 유사교리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음주와 흡연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나 술과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흡연과 음주에 해악에 대한 경고와 연구결과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지적

(指摘)질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흡연자와 음주가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술과 담배가 장애물로서 작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술과 담배가 무익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경을 그 근거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요 2:1-12)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葡萄酒, wine)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포도음료(葡萄飲料, grape juice)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튜버에서 접한 루이스의 언급을 기록해 본다. “자기한테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술을 삼가는 것이지 남이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남이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류의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결혼이든, 고기든 술이든 영화든-그런 것들을 포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서”⁵⁸⁾

2 유사교리화로 인한 부작용(副作用/不作用)

앞서 언급했던 유사교리화의 사례들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副作用·不作用)에 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성경은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생명책이며 구원에 관한 책이다. 어떤 특정한 이즘을 정당화의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칭의(稱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에 이름)과 더 나아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써의 삶 즉 성화(聖化)된 삶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인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 사건, 정책이나 사상 등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척(尺)으로 사용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58) <https://youtu.be/1ekIvApBDs>;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신학자명언 | [오늘의 신학공부]”

1) 성경이 특정 이즘의 깐부가 되면.

성경은 특정 이즘의 깐부가 됨으로써 성경의 진실/無誤性에 도전을 줄 수도 있다. 성경은 특정 이즘을 편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자(canon)라는 것이다. 자(尺)라는 것은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그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짧은지 아니면 긴지/옳은지 그른지(是/非)에 대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자(尺)를 가지고 측정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자(尺)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와 측정해야 할 대상이 일치한다고 해서 자가 측정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측정대상.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의인이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이라는 점이다. K. R. 라인홀드 니버(Karl Paul Reinhold Niebuhr)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2)에서 지적하였듯이 개개 인간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이기적이거나 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니버의 책 제목을 『비도덕적 인간과 더욱 비도덕적 사회』(Immoral Man and Even More Immoral Society)라고 책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니버의 생각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패하고 그들의 집단은 더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인간, 그리고 부패한 인간들이 모인 더욱 더 비도덕적인 이들의 집단, 그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이나 사상 등은 어떻겠는가? 근본적으로 하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 하자 없는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결함이 존재하는 정책/제도/사상 등에 대해서 기독교가 깐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극단적으로 “정책/제도/사상 등의 결함=기독교에 결함이 존재(?)” 하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해야할까?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합리적 인간으로 불리워지는 자본주의의 대표적 인간형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는 극단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인간이다. 피터 플레밍(Peter Fleming)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합리적 인간[Homo Economicus]은 과도하게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신화에 싸여 있으며, 극도로 금전 지향적인 인간이다. ...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처음부터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상징하는 인간형으로 정의됐다. 이 경제적 인간은 오직 금전의 취득이라는 목표에 따라 동기 부여되며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특히 ‘공공’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Fleming, 2018: 10-11. 강조는 본연구자).⁵⁹⁾ 극단적인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

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탐욕을 부추기게 되고 지속적인 탐욕의 추구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 K. 헌트(E. K. Hunt)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에 항상 존재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어디에서나 금전적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다. 그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된다. 둘째,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적어도 네 가지 사회경제 계급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부유한 자본가 계급, 소규모 자영업자와 독립 전문직 계급, 노동계급,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해 살아가거나 절도와 성매매 등 닥치는 대로 벌어먹고 사는 빈곤 계급, 그리고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모두 이윤 추구에 따라** 결정된다.”(Hunt, 2012: 34. 강조는 본 연구자). 한 마디로 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다음백과, ‘자본주의’ 참조).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극단적 이윤 추구, 이들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극단적 이윤 추구 경향으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케 한다. 이들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블록화된 경제환경은 세계 각처에 많은 문제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김으로써 발전해왔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소유욕(所有慾)과 보다 편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이를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인간이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됨으로써 인간의 삶의 터전이 전보다 훨씬 열악해졌다. 인간을 더욱 행복으로 인도하리라는 희망에서 출발한 현대 자본주의 실험은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위기에 부딪혔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면, 경제는 당분간 돌아갈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지구 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누리는 풍요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제로섬 사회(Zero-Sum Society)에서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김명수, 2010: 15)

교회 공동체 밖의 일반인들도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천민 자본

59) “... 대신 합리적 선택, 끝없는 축적, 개인적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한 금전적 원리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제도적 형태는 바로 돈과 직업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효율성 극대화라는 메시지를 유지하고 전파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Fleming, 2018: 155)

주의(Parish Capitalism), 좀비 자본주의(Zombie Capitalism),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카우보이 자본주의(Cowboy Capitalism), 깡패 자본주의(rogue capitalism) 또는 벌처 자본주의(Vulture Capitalism), 착취적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 Gomez-Barris, 2017: xvii), 전쟁 자본주의(War capitalism, [Beckert, 2018: 24]),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Naomi Klein)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간부로 자칭하면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 ‘자본주의=기독교[간부 관계]’, 자본주의의 문제 즉 오늘날 ‘자본주의 문제=기독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간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일단 간부가 되면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하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에서 오는 병폐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부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이 아무런 제지(制止) 없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 아니 더 호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과 차별 없이 “부자 되세요.”라는 구호가 신앙의 버전으로 바뀌어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가 되어 선포되거나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라는 간증이 교회 공동체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원과 은혜를 현실에서의 부의 축적의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웃기게 소리로 세상에서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등은 평등(平等)이 아니라 평(坪)등(等)이다. 교회도 평등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세상과 진배없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몇 평에서 사는가? 사는 집의 평수(坪數)가 얼마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부(富)가 신앙과 축복의 기준이 되고 만다.(참고로 평등사회(坪等社會)에서 등(等)은 등급(等級)/등수(等數)로 자녀의 성적 즉 등급/등수가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간부가 된 기독교는 자본주의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그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낳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각자도생을 꿈꾸게 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계발(自己啓發)에 집중하게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魚變成龍)는 신화를 덧붙인다.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멈추고 현실에 적응하여 그대들도 스스로 개천의 용이 되시라고 주문한다. 자기계발에 성공한 사례들을 띄우기 시작한다. 그래서인가 몰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긍정의 신학이라는 것과 자기계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세상 속에서 성공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간증에 내세움으로 인해 자기계발의 공동체에 퍼지도록 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비판이나 판단은 없어지게 된다. 문제의 원인은 비판과 판단을 하는

성도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반공주의라는 이즘의 깐부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반공 이슈가 이 나라에 지속되고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우리에게 피해를 준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가 하는 문제다. 사실상(de facto)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통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산주의⁶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행태가 사회주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산주의인가라는 질문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때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냐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과도적 형태이기에 사회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동아일보 기자인 주성하 박사가 나오는 유튜브의 내용을 보자.

북한은 사회주의다. 이걸 잘못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뿐이지 실제 사회주의와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가 노인들 고령연금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 시책이 아닙니다. 아프게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은 명색만 사회주의이지 사회주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간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정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

60) 다음을 참고해 보자. “지금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면, 공산주의라고 답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는 6.25 전쟁과 분단의 모순이 가져온 완고한 편견일 뿐, 학문적 기준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와 경제적 개념인 공산주의를 동등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일본을 거쳐 우리말화한 '주의'라는 단어가 혼선을 빚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영미권에서는 둘의 차이가 확연하다. 민주주의는 'Democracy'고, 공산주의는 'Communism'이다. 둘을 반대말로 상정하는 건, 마치 '정치'의 반대말을 '반정치'가 아닌, '경제'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서부원, 2022); <http://v.daum.net/v/20221114050600866>; 서부원, “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이것 때문인가 [아이들은 나의 스승] <오마이뉴스>. (2022.11.14.);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교육의 소산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산과 소유의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관한 용어이며,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경제메커니즘을 일컫는 사회과학용어일 뿐 '자본주의=민주주의'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반공교육, 자본주의체제 교육으로 인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편견이다.”(정책브리핑, 2006); <http://v.daum.net/v/20060928115108141>; “유럽 민주주의로부터 배울 점 <정책브리핑> (2006.09.28.);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이거나 공산주의가 아닌 것처럼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터무니없는 사례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전성원, 2009). <http://v.daum.net/v/20090107175107931>; 전성원, “[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 (2009.01.07.)

고 나쁜 것만 갖다가 조합해 놓은 괴기한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통치 형태에 있어서 북한은 봉건왕조적 왕조국가입니다.(주성하, https://youtu.be/cRF_k5E0BTg)⁶¹⁾

북한은 사회주의와 전혀 다른 국가라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은 허울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봉건적 왕조국가라는 것이다. 단지 김정은과 그의 지지 세력들을 위한 왕조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한국전쟁과의 경험에 의해 ‘북한=공산국가 ⇔반공주의=기독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제 북한을 두고 극단적 반공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반김씨왕조(反金氏王朝)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공=기독교’라는 도식은 이단을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사례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통일교의 반공·멸공·승공은 이 나라에서만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교세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양편승은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반공주의가 통일교의 주요 활동이었음을 지적한다. “개신교계는 한국전쟁 이후 강력한 반공주의가 형성된다. 통일교도 한국전쟁이라는 (...) 그동안 통일교가 전개하는 주요 활동들이 승공활동, 남북통일운동, 평화운동, 유엔개신운동, 초종교 초국가운동 등이 주요 활동이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양편승, 2011: 293) 김남혁도 반공주의와 통일교의 밀접한 교리를 지적한다. 특히 미국으로 통일교가 진출하는데 반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공주의는 통일교의 교리 혹은 종교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었다. (...) 특히 통일교와 같은 종교적 이념과 결합된 남한의 반공주의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존중하면서도 반전주의와 자유주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던 당대 미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심지어 미국인들을 가르치고자 했다. 교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문선명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자 한낱 아시아인이었던 그는 미국인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권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 문선명과 통일교 세력은 자신들에 의해 지지된 반공주의가 미국보다 강력한 반공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했다고도 여겨진다.”(김남혁, 2018: 136-140)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⁶²⁾가 출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련 세력과 가정 연합(옛 통일교)과 결탁한 이유에 대해서(대략, “일본 집권 자민당 세력, 가정연합(옛 통일교)과 결

61) https://youtu.be/cRF_k5E0BTg; 머니인사이드, “북한은 기를 쓰고 숨기고 있어요’ 탈북 기자가 알려 주는 숨겨진 북한 군사력 실체 (주성하 기자 풀버전)”

62) “日 정권 위협하는 '가정연합(옛 통일교)' | KBS 231113 방송”; https://youtu.be/XO_uGkGb0jk

탁한 이유”, 동영상의 11분 37초-15분 11초 사이) 반공과 일본 우익 정치집단과 합치되었다는 것이다. 60년대 일본 좌파 학생운동이 격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익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통일교(국제승공협회)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특정 이즘의 하나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에 대해서 기독교가 유사교리화하는 경우에는 통일(統一)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현범, 2023: “3. 반공 이념의 종교화”. 13-16 참조) 그래서 백석대학교의 주도홍 교수는 한국교회의 반공의식을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지난(至難)한 숙제임을 지적한다. 반공을 복음으로 그리고 반공의식을 가진 것을 신앙(반공=복음, 반공의식의 소유=신앙의 소유)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교회 공동체가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강한 반공의식은 통일한국을 바라볼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지난한 숙제이다.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이념 앞에서 실증할 수 있느냐의 물음이기도 하다. 반공이 꼭 복음이라는 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주도홍, 2018: 42; 최현범, 2023: 13, 14 참조)⁶³⁾

최현범 교수도 북한 정권을 마귀/사탄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평화 통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사탄과의 평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탄으로 상징되는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사탄으로 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북한을 사탄으로 보는 데 타협과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평화와 타협이 애초부터 불가능 하기에 대립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섬김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정권을 악과 마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갖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지지하기 어렵다. 도리어 힘의 우위를 앞세우는 대결 정책, 싸워서라도 상대방을 없애려는 전쟁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최현범, 2023: 8-9)⁶⁴⁾

63) “교회가 이처럼 반공으로 일관되었던 것은 단순히 전쟁과 박해로 인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무신론적인 유토피아로 인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병행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반공은 단순한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종교 교리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최현범, 2023: 13); “교회의 반공주의는 더 나은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종교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한 마디로 ‘신앙’이다. 정교분리를 말하면서도 설교에서 거리낌 없이 반공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정치가 아닌 신앙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반공교육은 곧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간주되었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민족복음화운동의 동기 중 하나 역시 반공이었다.”(최현범, 2023: 14)

64) 보수언론인 조갑제는 교회 공동체의 반공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을 다스리는 '惡靈의

교회 공동체가 북한을 사탄으로 보고, 반공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또 반공의식을 소유한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겠는가? 교회 공동체 밖 일반인의 눈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인가라는 의문을 생산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과연 평화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 그런데 왜 저들은 사랑의 말하지도 않는 이들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회의적 마음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반공이라는 특정 이념의 종교화는 북한과 신앙의 대결 구도를 낳게 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懷疑)와 의문(疑問) 그리고 비판(批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기독교의 흑역사(dark chapter)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은 비판의 장으로 다시금 꼬집어들이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의 기독교 안티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구실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과거 미국 대선 때에 [힐러리] 클린턴 너만 말고’(ABC, Anything But Clinton)의 정서가 미국을 도배하였던 것처럼 Anything But Christian[ity]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공동체와 이단(異端)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정통이 문제인데 이단이 문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오십보백보 아니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저들의 조상[선배]이 그 모양이었는데 더이상 무엇을 보자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만들게 될 것이다, “父傳子傳, 母傳女傳, 아닌가?”)

뒤에서 다루게 될 창조과학의 유사교리화와 더불어 동성애의 유사교리화에 대해서 다룰 때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구 창조연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젊은 지구론, Young Earth Creation], 무엇보다도 성경의 정확무오성(正確無誤性)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의 경우 동성애가 인정된다면 수간이나 다른 모든 성행위나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속된 말로 ‘개판오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지닌 이들은 교회 공동체가 반공

三位一體 구조에서 聖靈에 해당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魔王들(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고, 聖父는 마왕의 꼭두각시 김일성, 聖子는 꼭두각시를 선전하는 거짓선지자 김정일에 비유된다.”(조갑제, 2010);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31215&C_CC=AF; 조갑제, “요한계시록과 북한정권”. <조갑제닷컴>. (2010.02.12.)

과 자본주의와 같은 특정 이념을 종교화 즉 유사교리화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자본주의=기독교 유사교리’, ‘반공=기독교 유사교리’로 할 경우에, ‘자본주의의 문제점=기독교의 문제점’, ‘반공이 지닌 문제점=기독교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구(緘口)하고 있는지 말이다.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특정 이념들을 유사교리화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생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

2) 창조과학의 유사교리화로 인한 병폐.

우리 인간이 그것도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시쳇말로 백퍼(100%) 가능할까? 해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일까?[證據主義]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며,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일까?[科學的 方法論]⁶⁵⁾ 성경은 모두 문자/如字的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文字主義]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과학적 정보를 전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과학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 속에 반드시 ‘과학적인 사실성’(scientific factuality)이 담겨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관점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본문과 현대 과학을 문자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치주의’⁶⁶⁾(Concordism)라고 부른다.(임택규, 2016: 33)⁶⁷⁾

창조과학은 극단적(極端的) 문자주의가 지닌 결함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원사라는 것이다. 구원사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가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해서 생략도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 기술도

65) 존 F. 호트(John F. Haught)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적 방법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 자체는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신념의 그물망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 그물망들이 우리를 진정한 실재를 향해 충분히 깊이 데려다줄 것인가 하는 물음은 늘 남아 있다.”(Haught, 2005: 268)

66) John F. Haught, 『신과 진화에 관한 101가지 질문』. 신재식 역 (서울: 지성사, 2004) 28. 5번째 질문에는 일치주의에 관한 설명과 문제점이 잘 소개되어 있다.

67) “창조과학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내가 가진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서 현대 과학의 성과를 흠집 내는 것’”(임택규, 2016: 12)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종학 서울대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열왕기상 7장 23절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는 틀린 기술이라는 것이다. 7장 23절을 보면 놋쇠 대장장이 히람(후람, Hiram, Bronze-worker)이 놋쇠를 부어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드는데 그 물통의 지름이 10 규빗이 되었다고 한다.

23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왕상7:23, <개역개정>, 강조는 본 연구자)

23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새번역>

And he made a Yam Mutzak (Cast Metal Sea), ten cubits from brim to brim; it was completely round and its height was 5 cubits; and a line of 30 cubits did measure around about it.(1 Kings 7:23, <OJB>)

And he made a molten sea, ten cubits from the one brim to the other: it was round all about, and his height was five cubits: and a line of thirty cubits did compass it round about.<(KJV)>

지름/直徑이 10 규빗이라고 한다면 그 둘레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 둘레를 30 규빗이라고 한다. “지름이 10인데 그 둘레가 30이라고 그렇다면 원주율(圓周率, number π), 3.14는 어디에 있는 것이여?”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종학 교수의 이에 대한 지적이다.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7장(표준새번역)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성전 안에 놓을 여러 기구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중 23절에 둥근 모양을 한 물통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름은 열 자요, 둘레는 삼십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원의 둘레는 지름의 3.14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열 자이면 둘레는 31.4자가 되어야 하죠. 원의 지름과 둘레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위배되는 이 성경의 표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만 틀린 것인가?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우종학, 2014: 112) 이 열왕기상의 기사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인가? 매우 지엽적(枝葉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가? 임택규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설명해내는 과학이론이 단지 성경의 문자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임택규, 2016: 97)

무리한 해석으로 인해 신빙성 없는 자료/主張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많다는 것이다.[小貪大失] 창조과학은 지금이야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Networking Service)에서 대부분 생성, 전달, 재생성과 복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시간에 본문에 대한 해석과 예화를 통해서 소개/宣布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철민이 지적하고 있듯이,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내용이 설교를 통해 신적 권위를 덧붙여 선포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무장해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창조과학이 지닌 문제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자체에 도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강단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가장 쉬운 곳일 수 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을 귀가 얇은 목사들이 신적 권위를 덧붙여 선포할 때, 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자체의 권위마저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윤철민, 2013: 174)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든가 하는 점이다. 교회 공동체 밖의 일반인이나 교회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문점을 가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배선(船)이라는 한자어(漢字語)에 대한 창조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창조과학 회원들은 배선(船)자를 [그림]68)에 보여주는 것처럼 파자화(破字化)한다. 舟(배, boat)+八(팔, 8)+口(입, mouth, person). 그리고 선(船)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Noah’s Ark)로 해석한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셈, 함, 야벳, Shem, Ham, and Japheth]과 자부(子婦)들이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창 6: 9-10, <개역개정>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 갔고(창7:7)

그렇다면 창조과학의 선(船)의 파자(破字, 解字)가 맞는가 하는 점이다. 여덟 팔(八)자나 아니면 안석 궤(几)자나 하는 것이다. [그림]6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네이버 한자 사전>

68) <https://youtu.be/18s-ARyapQc>; “성경과학아카데미 6강 한자와 창세기1(한자의 원리와 배경), 성경과학연구소 (153월터교회) 김명현 박사”

69) '船': 네이버 한자사전 (naver.com); <https://hanja.dic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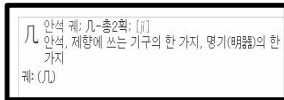
은 안석 궤(几)로 파자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글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도 그런 마찬가지로였다. 다음에 인용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자.

船자는 ‘배’나 ‘선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船자는 舟(배 주)자와舂(눅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舂자는 물이 고여 있는 ‘눅’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船자는 舟자와 沿(물 따라갈 연)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沿자는 물이 높으로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물을 따라 굽어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船자는 이렇게 ‘물을 따라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沿자에 舟자를 결합한 것으로 배가 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네이버 한자 사전

이 글자는 형성자일 뿐이다. 즉,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舟)와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舂)가 붙어서 만들어 졌다는 뜻이다. 연(舂)은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한자이며 단지 음가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금문(金文)이나 전문(篆文)을 보면 위에 있는 八를 ‘여덟 팔’로 봐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프로이트(Freud)에겐 모든 도구들이 ‘성기(性器)’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보였는데,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우려심이 든다.⁷⁰⁾

임택규도 배 선(船)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배 선(船) 자를 파자화 해서 여덟 팔(八) 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船(배 선)자를 비롯해 창조과학회의 아전인수식 한자 해석을 마주할 때, 나는 조선 중기에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조광조를 숙청



시켰던 주초위왕(走肖爲王)의 ‘파자(破字)놀이’가 떠오른다. 나 못앞에 꼴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 조광조의 역심을 하늘이 알려주셨다고 모함해서 조광조를 제거했던 일화가 있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즉 주(走)와 초(肖)를 합하면 조(趙爲)라는 글자가 되며 그럴 경우 趙爲王(조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해석된다. 조(趙王)라는 글자를 쪼개서 (파자) 주초(走肖)라는 두 글자를 만들어 마치 역성혁명으로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신성한 계시처럼 간주 되게 만든 것이었다. (...) 중국계 동료들이 창조과학식 한자 풀이를 듣자마다 즉각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船(배 선)자를 형성하는 几자는 八(여덟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几은 바로 ‘몇 기’라는 것이다(안석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궤라고 발음된다) 그들은 几와 八은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서 황당해했다.”(임택규,

70) <https://leeza.tistory.com/34388>; 건방진방랑자, “2011년 사람여행 - 55. 배선[船]이란 한자엔 성경 내용이 담겨 있다?” (2021.02.16.);

3) 동성애의 유사교리화로 인한 병폐.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라고 진술했었다. 그런데 이를 교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 어느 특정한 것에 관심이 극단적으로 쫓히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성행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적 일탈행위에 비해서 강조됨으로 다른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형태를 보인/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다른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함구하면서도 동성애라는 단어에는 매우 자극적이고 격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세속국가다. 정교분리의 사회라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는 것이다.[基督市民, Christian citizens]⁷¹⁾ 그런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나라가 정교분리의 세속국가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안한 소리이지만 현실은 투표-특히 입법(立法) 기간인 국회의원 선출과 이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동성결혼과 다른 문제들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동성애와 관련해 반대를 위한 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친다고 해서-협오에 가까운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동성결혼과 그와 관련된 정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동성애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 그것도 지명도가 있는 교회 인사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교회의 공신력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교회 내에서 성범죄/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들이 교회 밖의 동성애 그것도 정교분리의 세속국가에 사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협오에 가까운 발언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문제다. “너나

71) “‘시민성’은 간단히 정의하여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기에 적합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정체성에 기초한 이러한 정신의 담지자를 ‘기독교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박형신, 2016: 532); “초대 교회의 변증가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뛰어난 시민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주는 전체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복잡성을 존중하면서 정치 과정과 쟁점들에 동참하고, 상투적인 말이나 지나친 단순화나 선거운동을 악마화하는 마니교(Manichaeism)적인 사고방식을 피해야 합니다.”(Trueman, 2012: 27)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세상 밖의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당신들 안의 성폭력이나 먼저 손보시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왜 사회적 소수자 중에 동성애자들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발적 소수자-김일수 전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김일수, 2019: 79]를 제외한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성애의 유사교리화와 관련해서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 동성과의 결혼(Same-sex Marriage)을 허용하게 되면 폴리가미(Polygamy)도 허용될 것이고 폴리아모리(Polyamory, cf. polyamorist, polyfidelity[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과 집단을 구성하고 성관계를 나누는 혼인 관계]) 관계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물과의 결혼(human-animal marriage, zoophilia)도 정당화될 수 있고 ...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Anything Goes)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量産)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리에 의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곧 현실에서 실행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다. 참고로 교회 공동체 내에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사례의 지속적 방법이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막연(漠然)한 두려움+극단적 사례[설교/교육]⇒ 두려움 강화.” 만약 아래의 [그림前)72)中)73) 後)]74)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주면 어떤 반응 보일까?75) 물론 그림보다는 동영상 보여주거나, 권위 있는 대표적인 학자나 전문가가 나와서 주장/이야기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클 것이다.



72)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2/Khajuraho-Lakshmana_Temple_erotic_detail3.JPG/220px-Khajuraho-Lakshmana_Temple_erotic_detail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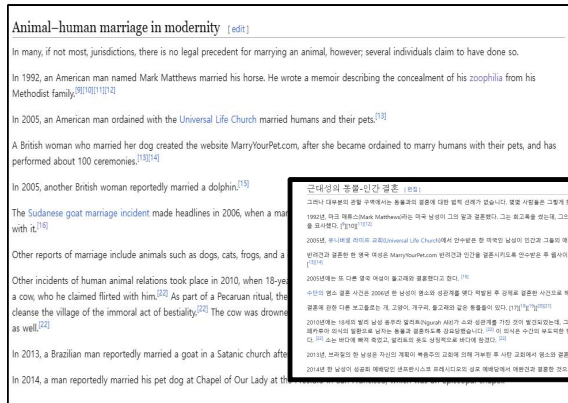
73) <https://www.standardmedia.co.ke/profiles/article/2000112879/man-set-to-marry-pet-goat>

74) <http://www.foxnews.com/story/2006/01/03/british-woman-marries-dolphin.html>

75) <https://en.wikipedia.org/wiki/Zoophilia>: “Zoophilia”,:

https://en.wikipedia.org/wiki/Human%E2%80%93animal_marriage#Cat; “Human-animal marriage.”

여기 오른쪽에 영어로 된 기사가 보이지요. 그 기사에 의하면 영국의 한 여성이 돌고래와 2005년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나라의 누가 염소와 결혼을 했다, 어떤 여성은 개와 고양이, 개구리 등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보셨지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시간이 지나면 동성애를 허용했으니까. 그러면서 동물과의 결혼도 ... 그렇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써야 할 문제 중에는 동성애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4) 여성 목사안수와 주조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 목사안수 문제를 창조질서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목사안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적인 교회에서 여성 목사안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여성 목사안수의 문제에 대해서 창조질서와는 거리가 있는/동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창조질서는 영구 불변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여성 목사안수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반대 근거로 영구불변의 창조질서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큰 틀에서 여성차별이나 그보다 더 큰 차별이라는 큰 구조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내에 잔존하는 여성차별적 이해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안수, 왜 어떤 교단은 인정하는데, 어떤 교단은 인정하지 않지?”, “왜 저들은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A 나는 B라고 하는 것이지? 혹시 다른 것들도 그런 것 아니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저들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데?” “응, 여자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들이 믿는 성경에 여성은 잠잠해라, 수건을 머리에 쓰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쓰여 있다고 하네.” 해방과 차별금지를 외치는 현(現)시점에서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면 외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니까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외부인들은 사회에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 목회자와 남성 목회자 간의 차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안수를 받았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여성들의 사례비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목회자로서 보장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여성 목회자들의 대우의 향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다른 봉사자들-관리직 직원들- 또한 차별이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의 차별 사례=교회는 차별하는 집단=하나님은 차별을 옹호하시는 신’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초문제는 어떤가?⁷⁶⁾ 과거와 다르게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술과 담배를 하세요?”라는 사회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주초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해되기보다는 웰빙(Well-being)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주초문제의 강조는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과 기호의 문제가 중독성이 강한 술과 담배와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유사교리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할 경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사회구조적 문제 ⇨ 개인적 문제=신앙의 문제’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현실에서의 사회문제와는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스스로 게토화(ghettoization)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 스스로 게토화는 신앙을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하여 공적 영역과 거리를 둬으로써 신앙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써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동민, 2022: 281)⁷⁷⁾

76) https://youtu.be/_letjGumsD68; 성경에는 없는데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나요? 크리스천과 술에 대한 솔직하고 성경적인 인터뷰 | 최영수 목사 일터사역 전문가 | 비전상담소

77)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문제나 동성에 반대에 집중하고 양극화, 평화, 과학주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는 교회도 기독교 교육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국 교회학교의 경우도 세속적 과학과의 진지한 대화나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지 않는다.”(장동민, 2022: 281)

Ⅲ 나아가는 말

본고는 교리가 아닌 문제를 교리(기독교 본질) 차원으로 끌어 올려 가치를 부여하는 유사교리화(類似-敎理化, Pseudo-Doctrinalization)의 사례들과 더불어 사례들이 지닌 병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정 이념에 대한 유사교리화는 성경이 특정 이즘만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줌으로써 성경이 가지는 절대적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Canon, 尺)인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지하는 이념들에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념들의 문제 발생=성경 자체의 문제점⇒ 혹시 성경에 오류(?)’라는 신호를 일반인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과학의 문자주의적 해석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支持)/교리에 가까운 지지는 ‘과학과 기독교 간의 관계를 건널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유사교리화의 경향은 동성애 문제에 과몰입함으로써 다른 성적 일탈 문제와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保守) 교단의 여성 목사안수 반대의 유사교리화는 교회 공동체를 성/차별적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남근신(男性中心的 家父長制 男根神, 혹시 Patriarchal Phallus Dei?)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주초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의 문제는 중독성이 강한 주초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데 방해한다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素地)가 없기를 바라면서 본고는 동성애를 신앙적 차원의 죄(a sin)로 보는 반(反) 동성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성화(聖化)의 차원에서 주초(酒草)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상우 (2022).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동성애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학회. (통권39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604>
- 강상우 (2017). “동성애자들의 ‘세(勢, [數]) 불리기’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회. (통권 34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885>.
- 강상우 (2011). “수용·거부·변혁 과정-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 과정”. 춘계학술대회.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036>.
- 강희원 (2018). “악마(惡魔)의 「정의(正義)」: 「정의」로 빙의(憑依)한 「돈」”. 『법철학연구』 .
21(2). 333-382.
- 고영은 (2016).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 52. 867-893.
- 공헌배 (2021).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 연구: 루터와 칼빈의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한국
학연구』 . 76. 5-34
- 곽호철 (2020). “신천학살을 통해 본 이념적 타자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폭력성에 대한 기독교윤
리적 고찰”. 『대학과 선교』 . 45. 255-291.
- 권진관 (2017). “냉전과 한국 개신교-냉전 체제로 구조화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 분석”. 『신
학과 사회』 . 31(2). 9-43.
- 김광수 (1999). 『바울서신 다시 읽기: 고린도전서』 . 서울: 도서출판은성.
- 김기태 (1994). “과학적 창조론의 성격규정에 관한 연구”. 『高神大學校論文集』 . 21. 217-234.
- 김길성 (1996). “여성임직에 대한 성경의 교훈-디모데전서 2:8-15절을 중심으로”. 『신학지
남』 . 63(3). 121-146.
- 김남혁 (2018). “한국전쟁영화 <인천>에 투영된 반공주의와 통일교의 이념”. 『현대영화연
구』 . 30. 113-142.
- 김명배 (2013).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
리』 . 27. 159-195.
- 김명배 (2007). “한국 개신교 보수 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 14. 43-68.
- 김명수 (2010). “초기기독교 예수 운동에 나타난 공(公)경제윤리”. 『신학사상』 . 150.
83-115(본고는 다운 받은 pdf 페이지 수다. 1-18)
- 김성봉 (2012). “무덤에서 모태로-한국교회의 환골탈태를 위한 대안적 상상력”. 『교회와 문
화』 . 28. 9-24.
- 김성은 (2011). 『근대인의 탄생: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서울: 아이세움.
- 김성이·원준금 (2020).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차별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에 대한 재해석”. 『신

- 학과 학문』 . 22(1). 31-54.
- 김성진 (2021). “ACTS 신학공관운동을 통해 본 구약 지혜서 연구: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한 신본주의적 지혜서 연구”. 『ACTS 신학저널』 . 50. 59-98.
- 김승호 (2010). “기독교와 이슬람의 내세론 비교 연구”. 『성경과 신학』 . 54. 241-266.
- 김용국 (2018). “빌리 그래함의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 논총』 . 33. 157-186.
- 김인수 (1995). “한국교회와사회주의및 공산주의와의 관계 : 1920~30년대의 공산주의 교회 박해를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 27. 69-93.
- 김일수 (2019).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 서울: 세창출판사.
- 김학민 (2012). 『태초에 술이 있었네』 . 파주: 서해문집.
- 김형국 (2010).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1)』 . 서울: IVP.
- 김정형 (2020). 『창조론: 과학 시대 창조신앙』 . 3쇄발행. 서울: 새물결플러스.
- 김정형 (2019). “과학적 무신론의 도전과 창조론의 미래”. 『선교와 신학』 . 48. 111-141.
- 김정화 (2000). 『담배 이야기』 . 서울: 지호.
- 김진규 (2017). “최근 동성에 논쟁의 주요 쟁점들: 제임스 브론슨의 동성에 관한 구약 본문 해석에 대한 비평”. 『신앙과 학문』 . 22(1). 91-120.
- 남종국 (2015). “12~3세기 이자 대부를 둘러싼 논쟁: 자본주의의 서막인가?”. 『서양사연구』 . 52. 5-38.
- 박득훈 (2008). “한국교회, 자본주의의 예속에서 해당되어야-자본주의에 포획된 한국교회의 증상 진단과 처방”. 『기독교사상』 . 52(1). 32-57.
- 박아론 (1996). “여성의 목사 안수에 관한 여권주의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견해”. 『신학지남』 . 63(3). 11-49.
- 박은경 (2020). 『성스러운 한 끼』 . 파주: 서해문집.
- 박종균 (2021). “시민사회의 적, 극우 개신교의 레드-포비아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일고”. 『기독교사회윤리』 . 49. 39-72.
- 박종균 (2019). “루터 종교개혁과 근본주의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 56. 143-180.
- 박형신 (2016).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시민사회론, 선교적 교회론” 『신학과 실천』 . 48. 519-545.
- 백경학 (2018). 『유럽 맥주 여행: 맥주에 취한 세계사』 . 파주: (주)글항아리.
- 서창원 (2004a). “여성안수 허용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김세운 박사의 제안으로 촉발된 여성논쟁 II”. 『목회와 신학』 . 184. 200-207.
- 손석태 (2009). “여성 안수 성경적인가?”. 『개신논집』 . 9. 245-256.

- 송상용 (1983). “창조과학은 과학인가?”. 『과학과 기술』 . 16(9). 59-63.
- 신익상 (2018). “한국의 개신교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개신교 내 ‘돈’과 가난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연구”. 최현중·이숙진·신익상·류제동·김혜경·김명희·권진관 공저 (2018). 『돈’과 종교 II: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 동연. 47-82.
- 신재식 (2008). “종교적 문자주의’와 ‘과학적 문자주의’를 넘어서”. 『종교연구』 . 53. 27-62.
- 심창섭 (1997). “여성 안수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 64(3). 192-201.
- 양낙홍 (2013).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성경과 신학』 . 66. 189-225.
- 양창삼 (1987). “문화 및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현상과 인식』 . 11(3). 77-110.
- 양편승 (2011). “한국전쟁이 신종교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통일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 25. 27-298.
- 오광석 (2022). “성직자 안수문제: 초대교회 안수 전통과 초기 감리교 목회자 안수에 대한 고찰”. 『신학과 세계』 . 102. 283-323.
- 오두영 (2013). “러시아 자본주의의 형성: 구교파 공동체”. 『서양사학연구』 . 29. 49-73.
- 우종학 (2017).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 서울: 새물결플러스.
- 우종학 (2014).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 확대개정판. 서울: IVP.
- 원준금 (2010). “고린도전서 11: 2-16에 대한 주석적 연구: 아카타칼립토스(akatakalyptos)를 중심으로”. 『신학리뷰』 . 17. 67-89.
- 윤응진 (2012). “기독교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 29. 25-56.
- 윤인로 (2014). “신의 폭력’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서강인문논총』 . 41. 111-148.
- 윤은순 (2010).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 32. (2010) 5-29.
- 윤철민 (2013). 『개혁신학 vs. 창조과학』 . 서울: CLC.
- 이강희 (2019). 『맛있는 맥주 인문학』 . 서울: 북카라반.
- 이경직 (2018). “교회 일치와 분열의 기준”. 『조직신학연구』 . 29. 16-45.
- 이관직 (1997). “성경 속에 나타난 여성안수에 대한 이해”. 『신학지남』 . 64(3). 295-304.
- 이국진 (2020).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직제에 관한 연구”. 『생명과말씀』 . 27. 87-132.
- 이만열 (1995).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이만열 외 공저.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 서울: 두란노.
- 이민규 (2017). “성경으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성경과신학』 . 81. 301-38.
- 이신열 (2018). “칼빈의 자연신학 이해”. 『한국개혁신학』 . 57. 40-71.
- 이숙진 (2016).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후기자본주의시대 한국교회의 ‘돈’ 담론”. 『종교연구』 . 76(2). 81-115.

- 이승구 (2012).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의 문제에 대한 한 고찰: 디모데전서 2:9-15에 대한 성경 신학적 논의”. 『교회와 문화』 . 28. 53-94.
- 이재현 (2016). “1부. 제4장.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 용인: 킹덤북스. 142-183.
- 이정배 (2011). “한국적 생태신학-다석의 ‘빈탕한데 맞혀놀이’와 盡物性 개념을 중심으로”. 『글러벌시대의 한국신학』 . 제40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27-250.
- 이정순 (2016). “오순절주의의 특성과 신학적 의미”. 『신학과 실천』 . 48. 331-356.
- 이정연 (2019). “서울, 자본의 도시와 교회의 비대화”. 『서울과 역사』 . 101. 345-393.
- 이태희 (2016). “8부. 제2장. 동성애,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 용인: 킹덤북스. 800-827.
- 이형규 (2020). “한반도 분단체제하 종교폭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와 사회』 . 8(2). 91-127.
- 이희성 (2020). “고대 근동과 구약의 우주 지형도 비교 연구: 하늘, 땅, 지하세계를 중심으로”. 『구약논집』 . 17. 32-66.
- 임병필 (2018).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 서울: 모시는사람들.
- 임영동 (2019).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칼빈의 자연이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 연구』 . 32. 160-198.
- 임택규 (2016). 『아론의 송아지』 . 서울: 새물결플러스.
- 장규식 (2006).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 24. 103-129(본고 인용은 pdf 페이지 수다. 1-30)
- 장동민 (2022). “대한민국 기독교교육과 공교육, 과거에서 길을 찾다”. 『생명과말씀』 . 34. 236-302
- 정승우 (2013). “예수는 어떻게 한국에서 민족과 반공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민족/ 반공담론에 나타난 예수像”. 『신약논단』 . 20(3). 573-612.
- 정승원 (2021). “창조질서를 통하여 본 여성 목사안수”. 『신학지남』 . 88(3). 85-115.
- 제원호 (2019).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 서울: Passover.
- 조기연 (2010). “여성안수: 찬성과 반대”. 『신학과 선교』 . 36. 1-20.
- 조용훈 (2006). “한국교회와 반공주의”. 『기독교사회윤리』 . 12. 55-73.
- 주도홍 (2018). “한국교회,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기독교와 통일』 . 9(2). 39-58.
- 주영흠 (1983). “인류의 진화: 창조과학적 측면”. 『과학과 기술』 . 16(6). 37-47.
- 최승락 (2016). “1부, 제6장. 바울의 순리와 역리 개념과 동성애 문제”.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 용인: 킹덤북스. 211-233.
- 최유진 (2017). “은혜의 경제: 캐트린 테너의 신학적 경제학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 42,

- 421-450.
- 최종호 (2010). “여성들의 목회 참여를 위한 성경적-신학적 고찰-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관하여”. 『인문학논총』 . 15(1). 175-193.
- 최현범 (202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기독교와 통일』 , 14(2). 7-40.
- 최형목 (2016). “그리스도교와 자본주의: 인간의 삶을 위한 교회의 선택”. 『신학과 철학』 . 29. 125-148.
- 한상기 (2013). “20세기 철학에서 과학주의: 과학적 경험주의와 자연화된 인식론”. 『범한철학』 . 69. 281-305.
- 한성기 (2014). “기독교적 관점의 경제윤리”. 『신학지평』 . 27. 63-88.
- Bailey, Kenneth E. (2008).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Downers Grove, IL: IVP.
- 박규태 역 (2016).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 서울: 새물결플러스.
- Burns, Eric (2007). *The Smoke of the Gods*. Temple University Press.
- 박중서 (2015). 『신들의 연기, 담배: 담배의 문화사』 . 서울: 책세상.
- Cox, Harvey (2016). *The Market as God*. Harvard University Press.
- 유강은 역 (2018). 『신이 된 시장: 시장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나』 . 서울: 주문예출판.
- Fleming, Peter (2017). *The Death of Homo Economicus* Pluto Press.
- 박영준 역 (2018).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 서울: 한스미디어(주).
- Gomez-Barris, Macarena (2017). *The Extractive Zone: Social ecological and decolonial perspectiv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Haarsma Deborah B. and Loren D. Haarsma (2011). *Origins: Christian perspectives on creation, evolution, and intelligent design*. Grand Rapids, MI: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 한국기독교과학자회 역 (2012). 『오리진』 . 서울: IVP.
- Haight, John F. (2003). *Deeper than Darwin*, Westview Press.
- 김윤성 역 (2006). 『다윈 안의 신』 . 서울: 지식의 숲.
- Hunt, E. K. (2003). *Property and Prophets*. Armonk, NY: M. E. Sharpe.
- 유강은 역 (2012).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강의』 . 서울: 이매진.
- Kinnaman, David (2011). *You Lost M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이선숙 역 (2015).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Le Goff, Jacques (1989). *La Bourse et la vie*. 김정희 역 (1998). 『돈과 구원: 고리대금업자에서 은행가로』 . 서울: 이학사.
- Lutzer, Erwin W. (2010). *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Chicago, Ill: Moody Publishers.
- 홍종락 역 (2011).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 서울: 두란노.

- Murakami, Mitsuru (2010). Beer Sekaishi Kiko. Tokyo. Chikumashobo. 이현정 역 (2012). 『맥주, 문화를 품다』. 서울: (주)알에이치코리아.
- Richards, Jeffrey (1991). Sex, Dissidence and Damnation. London: Routledge. 유희수·조명동 공역 (1999). 『중세의 소외집단』. 서울: 느티나무.
- Stott, John R. W. (2006).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정옥배 역 (2014).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Tawney, Richard H. (1926).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고세훈 역 (2015).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한길사.
- Trueman, Carl R. (2010). Republocrat: Confessions of a Liberal Conservative. 김재영 역 (2012).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 서울: 지평서원.
- Walsh, Brian and Sylvia Keesmaat (2004). Colossians Remixed. Downers Grove, IL: IVP. 홍병룡 역 (2011). 『제국과 천국』. 서울: IVP.

는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의 유사 교리화(類似敎理化) : 그 사례와 부정적 영향	발표자	강상우
		논찬자	석중준 침신대 조직신학 겸임교수

저자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의 원인 중에는 “교리가 아닌 것”(기독교 비본질)에 대해서 “교리 수준”(기독교 본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전제로 해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유사교리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유사교리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첫째, 성경은 정경(canon)으로서 어떤 특정 이론이나 사상(-isms)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편먹는 것(간부)이 아니라, 그들 이론이나 사상이 지는 숨겨진 문제점(hidden issues)에 대해서 지적(rebuke, reproof)하고 고쳐주고(correction)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teaching, training)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사고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Essential Doctrine)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Non-essential Doctrine)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오늘날 논란 중에 있는 1) “이증화”의 문제, 2) 창조과학의 문제, 3) 동성애 문제, 4) 여성안수 문제, 5) 주초문제를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본질(교리)과는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와 주초문제는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동성애는 적극적으로 성경에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성적 일탈행위(逸脫行爲)로 하나님 앞에서 죄(a sin)에 성격을 갖는다. 주초문제(酒草問題)는 거룩한 삶과 관련된 것으로 성경이 동성애와 같이 특별하게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기에 근본적으로는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 안수문제의 창조질서에 관한 결부와 창조과학의 해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유사교리화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副作用/不作用)을 낳는다.

첫째, 특정 이즘을 편드는 도구가 아닌 성경이 특정 이즘의 “간부”가 되면, 우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 병폐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통일(統一)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기독교 유사교리’, ‘반공=기독교 유사교리’로 할 경우, ‘자본주의의 문제점=기독교의 문제점’, ‘반공이 지닌 문제점=기독교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창조과학은 극단적(極端的) 문자주의의 귀결로서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설명해내는 과학이론이 단지 성경의 문자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셋째, 동성애의 유사교리화로 인한 병폐는 교회 내에서 성범죄/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들이 교회 밖의 동성애 그것도 정교분리의 세속국가에 사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혐오에 가까운 발언을 먼저하기 보다 왜 사회적 소수자 중에 동성애자들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야 한다.

넷째, 여성 목사안수 반대의 유사교리화는 교회 공동체를 성/차별적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남근신(男性中心的 家父長制 男根神, 혹은 Patriarchal Phallus Dei?)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주초문제에 대한 유사교리화의 문제는 중독성이 강한 주초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데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 가장 논쟁 중에 있는 논제들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저자의 교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을 크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논제들을 본질적/비본질적 두 유형 중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본말의 전도를 다시 복구하고, 성경적으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의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논평자는 특별히 저자가 성경 메시지를 특정한 이념에 종속된 담론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창조과학회의 입장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유일의 창조론 담론으로 단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동성애 문제를 우리 기독교가 직면한 모든 것들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논제로 비약한다는 지적도 대체로 지지한다.

다만 논평자는 저자가 다루고 있는 위 다섯 가지 논제는 한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것들로 보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각 논제에 대한 별개의 논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존하는 다양한 이론이나 논거들에 대한 비교나 친절한 안내나 소개 없이 저자의 주장을 강변하는 듯한 전개는 논문의 양식에 큰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저자의 논의 전개에서 드러나는, 가령, “간부”(36면, 37면, 38면), “개판 오분전”(41면), “끝판왕”(36면), “시쳇말로 백퍼(100%) 가능”(42면) 등의 은어/비속어 표현이나, 여러 문장 속에 삽입되어 등장하는 “<, =”의 표기 자주 등장하는 표기들을 논문 양식에는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문제제기한 논제의 전개 틀로 “유사 교리화(비본질적인 것)”과 “교리(본질적인 것)”으로 두 영역을 구분했는데, 그 본질적 교리에는 가톨릭의 것과 개신교의 것이 함께 있고, 또 그 “유사교리”의 분별 기준을 단지 “성경이라는 정경(Canon)”에 근거한다고만 선언함으로써,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조차 같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교리 공존이 현실적으로 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기초적 안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보완될 부분으로 보인다.